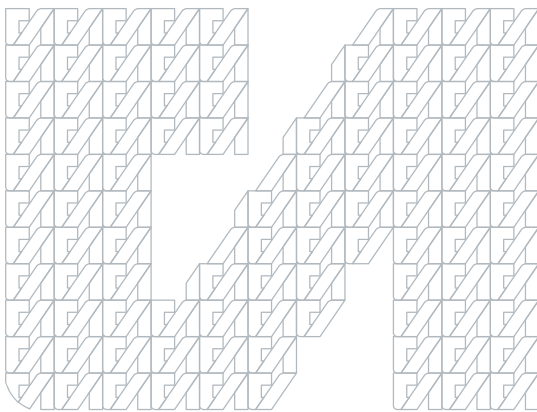


대전세종 상생발전 구상 연구

최길수 · 권대한 · 김흥태



연구책임

비상임연구원

- 최길수 / 상생협력실장
- 권대한 / 유랩코리아 대표이사
- 김흥태 / URI 미래전략연구원장

정책연구 2017-63

대전세종 상생발전 구상 연구

발행인 박 재 목

발행일 2017년 12월

발행처 대전세종연구원

34863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85(선화동 287-2)

전화: 042-530-3517 팩스: 042-530-3528

홈페이지 : <http://www.dsi.re.kr>

인 쇄 청맥기획 TEL 042-487-2589 FAX 042-487-1887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책임자의 견해로서 대전광역시의 세종특별자치시의 정책적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으나 무단 전재나 복제는 금합니다.

요약 및 정책건의

■ 연구 배경과 연구 목적

- 세종시 건설 목표연도가 2030년이므로 완성단계에 도달하기에는 아직 장기간의 남아있어 향후 다양한 사회적·문화적 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세종시의 도시기능이 미약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인접 주변 도시 특히 대전시를 서로 연계하면서 발전하는 모델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 이미 행정도시와 과학도시로 자리매김 된 대전광역시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로 특별자치도시로 출범한 세종특별자치시와의 상생발전 구상을 제시
- 세계화시대의 글로벌 개발전략이 광역권 전략임을 확인하고 국토발전 차원에서의 대전·세종시가 담당해야 할 역할을 살펴봄으로서 대전·세종간의 상생발전 구상에 대하여 거시적인 안목에서 고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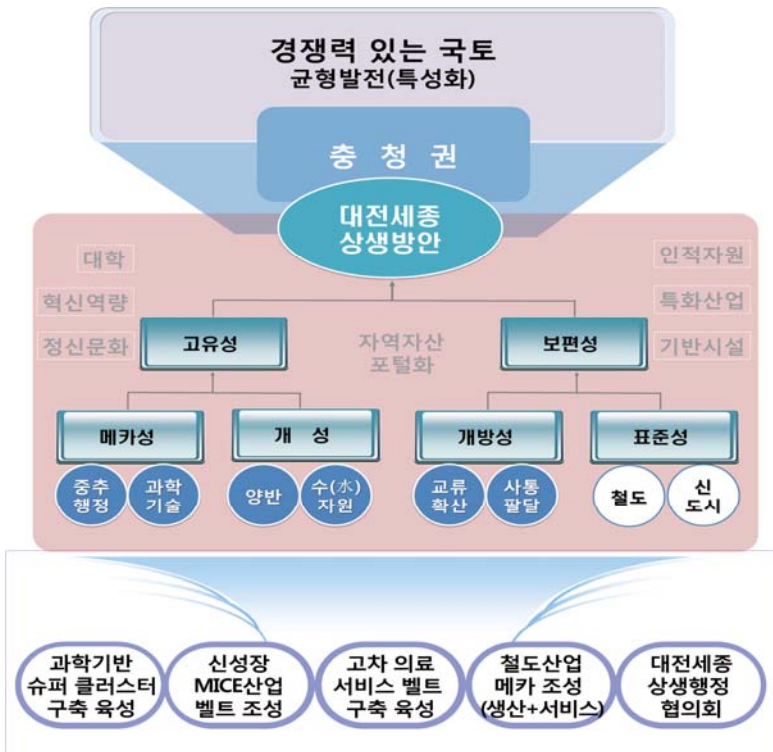
■ 연구 방법

- 문헌검토는 상생협력의 의의 및 상생협력 유형을 구분하고, 메가시티 지역(Megacity Region), 네트워크 도시(Network City) 등 도시간 상생협력 모델을 제시
- 사례검토는 해오름동맹, 대구경북한뿌리상생위원회 등 국내사례와 일본 간사이 광역연합(Union of Kansai Governments), 네덜란드 란스타드 등 해외사례 검토하여 시사점 도출
- 대전·세종 특성 분석을 위해 두 도시간 일반여건, 지역경제, 교통 및 유통시설, 문화·관광부문 현황을 살펴본 후 여건종합(SWOT) 분석
- 여건종합(SWOT) 분석 및 전문가 자문을 토대로 대전세종 상생발전 기본구조 및 발전구상 제시

■ 연구결과

□ 기본방향

- 대전·세종 상생발전 기본구조는 ①과학기술 기반 슈퍼 클러스터 구축 육성, ②신성장 MICE산업 벨트 조성, ③고차 의료 서비스 벨트 구축 육성, ④철도산업 메카조성, ⑤대전세종상생행정협의회 운영 등임



□ 과학기반 슈퍼 클러스터 구축 육성

- 대전·세종에는 대덕연구개발구,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과학 연구관련 행정기관 등 주요 국가연구개발 시설과 인력이 집중되어 있음. 따라서 여기에서 생산되는 지식의 특성을 반영하여 기초, 원천 연구성과의 사업화 모델을 구축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보유

- 대전 카이스트 등 대학-대덕연구단지-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주변 첨단 산업-국가행정서비스를 연계하는 IoT산업생태계 구축 및 미래산업 테 스트베트 거점화를 수행할 수 있는 과학기반 슈퍼 클러스터 구축 육성

□ 신성장 MICE산업벨트 조성

- 대전·세종의 경우, 대전컨벤션센터(DCC)와 KOTRA대전무역전시관, 정 부세종컨벤션센터, 국제전시컨벤션센터(예정) 등 우수한 MICE산업시설 있으므로 주변의 문화·관광자원 연계한 신성장 MICE산업 벨트 조성
- 신성장동력산업인 MICE산업 육성을 통한 서비스산업 고도화와 MICE 산업벨트는 대전·세종의 글로벌화에 기여하게 될 것임

□ 고차 의료서비스 벨트 구축 육성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와 첨단의료복합단지와 연계하여 고차 의료서비 스 벨트를 전략으로 육성하여, 기초과학, 응용과학이 공존하는 신약개 발과 치료, 첨단 의료장비 개발 및 사업화가 이루어지는 미래형 메디 칼 융·복합도시를 조성함으로써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음
- 고차 의료서비스 벨트 내 글로벌 차원의 의약업체와 의료기관, 교육 및 연구기관을 유치하여 새로운 방식의 차세대 성장동력 거점으로 대 전·세종권은 물론 국가 차원의 글로벌화를 선도할 수 있을 것임

□ 철도산업 메카 조성(생산+서비스)

- 대전은 대한민국 철도산업의 중심지, 철도와 함께 성장하며 풍부한 문화유산 및 콘텐츠 보유, 많은 유동인구와 연간 200만명 이상의 관 람객 유치가 가능한 우수한 접근성을 갖고 있음
- 세종시는 철도정책 및 사업의 개발 추진하는 국토교통부가 입지하고 있으므로 행정의 중심 역할 수행하고 있으므로 대전세종을 철도산업 (문화)메카로 조성하고자 함

□ 대전세종상생행정협의회

-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대전세종 협력사업 보다 한 단계 진전된 대전세종상생행정협의회를 조직할 필요성 제기
- 충청권 행정협의회 규약을 참고하여 대전세종상생행정협의회를 출범하며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상생협력과제(사업)의 효과적인 발굴·추진을 위하여 「대전세종상생협력 기획단」을 설치

■ 정책건의

- 대전세종지역은 국토균형 발전 차원에서 중심 허브 내지 충청권 공동발전의 연계확산 역할이 가능한 이점을 지니고 있는 지역임
- 대전세종지역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국가 중추행정과 과학기술 중추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발전 잠재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아젠더 및 핵심프로젝트가 미약한 실정임
- 따라서 대전세종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상생발전계획을 수립하여, 대전세종 상생 아젠더 및 핵심프로젝트 발굴·추진할 필요가 있음
- 이는 대전세종의 상생발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정책적, 계획적 기반으로 작용될 수 있을 것임

차 례

1장 서론	3
1. 연구배경 및 목적	3
2. 연구방법	4
2장 문헌고찰 및 사례검토	7
1. 문헌고찰	7
1) 상생협력의 의의	7
2) 도시간 상생협력 모델	10
2. 사례검토	13
1) 국내사례	13
2) 국외사례	16
3) 시사점	22
3장 대전·세종 특성분석	27
1. 일반여건	27
1) 입지여건	27
2) 인구추이	28
3) 인구구조	28
4) 인구이동	30
2. 지역경제	31
1) 산업구조	31
2) 경제활동인구	33
3) 산업단지	33
4) 대학	35
3. 교통 및 유통시설	38
1) 도로	38
2) 철도	40

3) 유통시설	40
4. 문화·관광부문	41
1) 문화관광자원	41
2) 관광기반시설	43
3) 관광객 추이	43
5. 여건종합(SWOT)분석	44
1) 강점요인	44
2) 약점요인	44
3) 기회요인	45
4) 위협요인	46
4장 대전·세종 상생발전 방향	51
1. 기본방향	51
1) 상생발전 기본구조	51
2) 상생발전 주요과제 : 5개 분야 12대 과제	52
2. 상생발전 발전구상	53
1) 과학기반 슈퍼 클러스터 구축 육성	53
2) 신성장 MICE산업벨트 조성	56
3) 고차 의료서비스 벨트 구축 육성	58
4) 철도산업 메카 조성(생산+서비스)	60
5) 대전세종상생행정협의회	64
5장 결론 및 정책건의	71
1. 결론	71
2. 정책건의	73
참고문헌	75

표 차례

[표 2-1] 지방자치법에 의거한 지역상생 유형	9
[표 2-2] 간사이 지역 산업 클러스터 현황	18
[표 2-3] 란스타드 주요 도시의 기능분담	20
[표 3-1] 행정구역 현황	27
[표 3-2] 대전세종 인구 추이	28
[표 3-3] 대전시 및 세종시 인구구조 추이	29
[표 3-4] 대전·세종 인구이동 추이	30
[표 3-5] 대전·세종 사업체 및 종사자수 변화 추이	31
[표 3-6] 대전·세종 업종별 종사자수 비교	32
[표 3-7] 대전·세종 경제활동인구 추이	33
[표 3-8] 대전시 및 세종시 산업단지 현황	34
[표 3-9] 대학별 중점 육성분야 및 특성화 학과 분포	36
[표 3-10] 대학특성화사업	37
[표 3-11] 철도수송 현황(2015)	40
[표 3-12] 유통시설 현황(2015)	40
[표 3-13] 문화재 현황(2015)	41
[표 3-14] 대전·세종 축제 개최계획(2017)	42
[표 3-15] 관광기반시설 현황(2015)	43
[표 3-16] 대전·세종 주요 관광지 방문객수 추이	43
[표 4-1] 국내 전시컨벤션센터 현황(2015년)	56
[표 4-2] 지역주력산업(2015~2017년)	59
[표 4-3] 지역주력산업(2018년~)	59
[표 4-4] 대전·세종 상생협력사업(5개 분야 12개 과제)	65

그림 차례

[그림 2-1] 네트워크 도시의 공간구조 유형	12
[그림 2-2] 동해남부권 상생발전의 의미	14
[그림 2-3] 간사이 광역연합 현황도	17
[그림 2-4] 간사이 광역연합 조직도	18
[그림 2-5] 최근의 란스타드	21
[그림 3-1] 행정구역도	27
[그림 3-2] 대전·세종 인구추이	28
[그림 3-3] 대전시 인구구조 추이	29
[그림 3-4] 세종시 인구구조 추이	30
[그림 3-5] 대전·세종 인구가동 추이	31
[그림 3-6] 대전시 산업단지 현황도	35
[그림 3-7] 세종시 산업단지 현황도	35
[그림 3-8] 행복도시권 광역 BRT 종합계획도(안)(‘18~’22)	39
[그림 3-9] 대전·세종 상생협력을 위한 SWOT분석결과	47
[그림 4-1] 대전·세종 상생발전 구상 기본구조	51
[그림 4-2] 대전·세종 상생협력사업	52
[그림 4-3] 과학기반 슈퍼 클러스터 구축	55
[그림 4-4] 의료권 설정기준	58
[그림 4-5] 행복도시권 광역철도 설치 계획(안)	61
[그림 4-6] 철도산업(문화)메카 조성 개념도	63

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 방법

1장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 대전은 지리적으로 수도권과 영·호남지역을 연결하는 국토의 중심지 이면서 육상교통의 주요 결절지이며, 기능적으로 국가중추행정기능과 국가과학기술의 혁신·발신기지로 중부권의 글로벌화에 중추적인 역할
- 또한, 지난 40여년 동안 발전해 온 대덕연구개발특구를 기반으로 국제과학비즈니스 벨트의 거점도시이며, 국제기구인 세계과학도시연합(WTA)을 운영하고 있어 글로벌화의 잠재력이 높은 지역
 - 한국판 실리콘밸리 육성사업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거점지구 대전·기능지구 세종)이 2017년 말 1단계 사업이 마무리됨
- 2012년 세종특별자치시로 출범하였으며 2014년 말부터 연차적으로 중앙행정기관 16개 기관(9부, 2처, 2청, 1실, 2위원회) 이전으로 세종시는 국가중추기능을 담당
- 문재인정부의 정부조직 40개 부·처·청 중 70%(13부, 3처, 12청·행정자치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포함)가 자리를 잡아 정부세종청사와 대전청사를 잇는 신행정벨트가 구축되었음
 - 정부 정책을 수립하는 데 꼭 필요한 싱크탱크 구실을 하는 국책연구기관인 정부출연연구기관도 54개 중 34개가 대전과 세종에 입지
- 중앙행정기능 이전으로 인한 행정중심도시로서의 위상 강화 및 주변 첨단산업클러스터 및 다수의 대학과 인접하고 있어 행정 산업 및 기능과의 연계로 상승효과 기대
- 세종시 건설은 분권국가·분권사회의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을 선도하고, 그동안 권력집중과 인구집중의 악순환 고리를 극복하여 인구와 기능의 지방분산으로 국토의 균형발전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전망

- 세종시 건설 목표연도가 2030년이므로 완성단계에 도달하기에는 아직 장기간의 남아있어 향후 다양한 사회적·문화적 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세종시의 도시기능이 미약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인접 주변 도시 특히 대전시를 서로 연계하면서 발전하는 모델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 각종 도로망이 구축되면서 대전과 세종의 물리적 거리가 가까워지고 있는데, 두 도시 간 5분대 공동 생활권 시대가 성큼 다가와 사실상 동일 생활권으로 볼 수 있음
- 이미 행정도시와 과학도시로 자리매김 된 대전광역시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로 특별자치도시로 출범한 세종특별자치시와의 상생발전 방안에 대하여 초점을 맞춰 제안하고자 함
- 이를 위하여 세계화시대의 글로벌 개발전략이 광역권 전략임을 확인하고 국토발전차원에서 대전·세종시가 담당해야 할 역할을 살펴봄으로서 대전·세종간의 상생발전 구상에 대하여 거시적인 관점에서 고찰해 보고자 함

2. 연구방법

- 문헌검토는 상생협력의 의미 및 상생협력 유형을 구분하고, 메가시티 지역(Megacity Region), 네트워크 도시(Network City) 등 도시간 상생협력 모델을 제시
- 사례검토로 해오름동맹, 대구경북한뿌리상생위원회 등 국내사례와 일본 간사이 광역연합(Union of Kansai Governments), 네덜란드 란스타드 등 해외사례 검토하여 시사점 도출
- 대전·세종 특성 분석을 위해 두 도시간 일반여건, 지역경제, 교통 및 유통시설, 문화·관광부문 현황을 살펴본 후 여건종합(SWOT) 분석
- 여건종합(SWOT) 분석 및 전문가 자문을 토대로 대전세종 상생발전 기본구조 및 발전구상 제시

2장

문헌고찰 및 사례 검토

1. 문헌고찰
2. 사례검토

2장 문헌고찰 및 사례검토

1. 문헌고찰

1) 상생협력의 의의

(1) 개념 정의

- 상생협력이란 어느 일방의 편파적이고 독점적인 이익관계가 아닌 협력당사자 간의 대등한 상호관계성을 유지하면서 공동이익과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전제에서 출발함(한표환 외, 2002)
- 지방자치단체간의 상생협력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시설의 설치, 경제 및 개발, 교류 및 행사, 행정서비스의 제공 등의 분야에서 광역사무의 처리나 행·재정 능력의 보완 등을 위한 개별 목표의 공동적 성취를 위해 긴밀한 상호 보완관계를 유지하면서 공생적인 사업관계를 통해 상호 이익을 증진시키는 것을 의미
- 상생협력을 통해 각 지방자치단체는 공간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지역의 범주를 벗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상호의존·상호보완적 관계를 형성하여 소기의 목표달성에 공동으로 대처하면서 상호이익을 증진시킬 수 있음

(2) 상생협력 유형

- 세계 각국의 많은 도시들은 인근 지역과 연계하여 협의회, 광역연합, 지방자치단체조합 등 다양한 형태로 상생협력을 도모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자치단체간 상생협력을 「지방자치법」 제8장(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관계)에 따라 크게 협력사업, 사무위탁, 행정협의회, 지방자치단체조합, 지방자치단체장 등 협의체 등으로 구분

- 대전·세종이 포함된 대표적인 자치단체간 상생협력 거버넌스는 충청권행정협의회와 행복도시권 광역교통협의회라 할 수 있음
 - 충청권행정협의회는 4개 광역자치단체(대전, 세종, 충북, 충남)와 31개의 기초지자체로 구성되어 있는데, 충청권광역경제위 폐지 및 세종시 출범 등 새로운 공동현안에 대해 긴밀하게 공조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조직됨
 - 최근 대전시, 세종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청주시, 공주시, 천안시 등 7개 지방자치단체와 행복청으로 구성된 행복도시권 광역교통협의회(2017.3월 구성)도 행정협의회의 하나라고 할 수 있음

[표 2-1] 지방자치법에 의거한 지역상생 유형

구분	운영목적	특징
협력사업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무의 공동처리, 사무처리의 협의·조정·승인 또는 지원요청이 있는 경우 법령의 범위 내에서 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자치단체 간 소관 사무를 공동으로 협약 또는 협의를 통해 처리 ◦ 자치단체간 협력사업의 성격으로 일종의 계약에 해당하여 별도의 법적 근거 불필요
사무위탁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장은 소관사무의 일부를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장에게 위탁처리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문화가 발달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방정부간 책임 전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사무위탁에 따른 권한 축소와 재정적 부담 우려 등으로 활성화에는 부적합
행정협의회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 처리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치단체간 협의로 맺은 규약에 의해 운영되면 협력의 초기단계 적합 ◦ 법인격이 없으므로 사무 처리는 협의회를 구성하는 지자체 명의로 하며 그 효과도 자치단체에 귀속
지방자치단체조합	2개 이상 지방자치단체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사무를 공동 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합은 법적 성격을 지니며,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도 다양한 광역사무를 효과적으로 처리 ◦ 조합 구성원이 지방자치단체이므로 이들로부터 운영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지원받게 되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조합의 독자성은 크지 않은 상황
지방자치단체장 등 협의체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회 의장은 상호 간 교류와 협력증진, 공동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전국적 협의체 설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로 전국단위로 운영

출처: 권용석 외, 「대구경북 상생협력 활성화를 위한 기초연구」, 대구경북연구원.

2) 도시간 상생협력 모델

(1) 메가시티지역(Megacity Reg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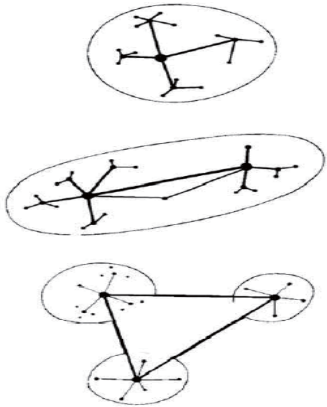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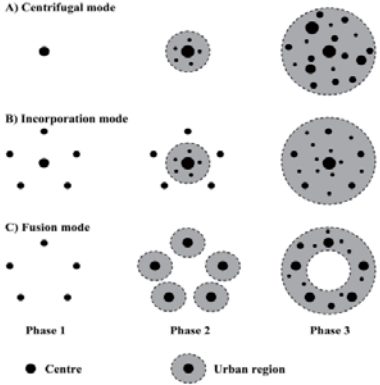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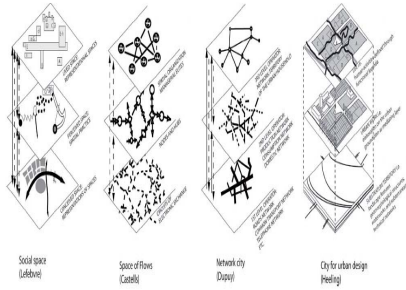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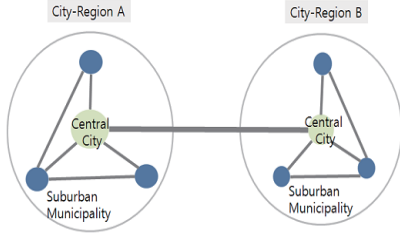
- 메가시티지역은 Gottmann(1961)이 미국 북동부지역의 대도시권을 대상으로 분석한 메가폴리스(Megalopolis) 연구에서 시초를 찾을 수 있음
- 메가시티지역은 메가시티에 지역의 개념을 포함한 용어로 행정적으로는 구분되어 있으나, 경제 등 기능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지역을 말함 (손정렬, 2011)
- 메가시티지역은 일반적으로 경제권과 대도시권의 개념을 포함하는 개념임
 - 경제권은 산업·철도·교통·커뮤니케이션 등 대도시와 주변지역 등에서 발생하는 모든 산업 및 경제활동을 의미함
 - 대도시권은 경제·사회·문화 등 경제활동과 일상생활의 영향력이 도심지를 넘어 외곽 또는 교외지역의 다른 자치정부의 관할 경계구역에 까지 영향을 미치는 범위를 포괄하는 지역으로 규정된 대도시지역을 의미함(안영훈, 2008)

(2) 네트워크 도시(Network City)¹⁾

- 네트워크 도시는 2개 이상의 도시들이 네트워크에 참여함으로써, 상호보완적인 관계 속에서 규모의 경제를 추구하고 상호 협력적 활동 속에서 시너지 효과를 내는 도시임(Capello, 2000)
- 네트워크 도시는 공간적·기능적 측면에서 다양하게 구분
 - Batten(1995)은 하나의 수위도시가 중심이 되는 단핵도시, 두 도시가 수평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연담도시, 셋 혹은 그 이상의 도시들 간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네트워크 도시로 구분

1) 김동주 외(2011), 글로벌 도시권 육성 방안 연구(II), 국토연구원.

- Champion(2001)은 도시권이 성장과정에서 다양한 형태로 변화함을 지적하며, 도시권의 유형을 중심형(centrifugal mode), 결합형(incorporation mode), 융합형(fusion mode)으로 구분
- Schaik(2005)은 도시네트워크의 공간구조를 사회적 공간, 교통이용정보의 흐름, 도시디자인 등 부문별 레이어(layer)로 구분
- Van Oort et al.(2010)은 도시내, 도시권내, 도시권간의 연계를 유형화하여 도시 내에서 이루어지는 연계, 중심-주변지역 간 연계, 교외도시 간 연계, 도시권간 중심도시 연계, 중심도시와 다른 도시권 교외지역과 연계, 교외지역과 다른 도시권 교외지역의 연계로 구분
- 네트워크 도시의 효과는 외부성(externalities) 증대, 도시 간 전문화·분업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 교통 및 통신 인프라로 연결된 범위의 경제, 중심지 도시체계의 기능 보완, 경제적 불확실성 감소 등이라고 할 수 있음
- 네트워크 도시는 지리적으로 연결한 도시들이 기존의 중심도시-위성도시 간 종속적이거나 의존적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 연계와 상호 보완성을 기초로 도시권 전체의 발전을 추구하는 새로운 광역발전 모델

구분	단핵-연담-네트워크 공간구조 Batten (1995)	중심형-결합형-융합형 공간구조 Champion (2001)
네트워크 공간구조		
구분	부문별 계층형(layer) 공간구조 Schaick (2005)	도시내-도시권내-도시권간 연계 공간구조 Van Oort et al.(2010)
네트워크 구조		

[그림 2-1] 네트워크 도시의 공간구조 유형

출처: 김동주 외(2011).

2. 사례검토

1) 국내사례

(1) 해오름동맹

① 개요

- 동해남부권(울산, 경주, 포항)은 역사적·공간적으로 하나의 생활권
→ 울산-포항고속도로 개통을 계기로 대형 도시연합체 탄생
 - 동해남부권의 인구는 약 200만명으로 전국의 3.3%차지, 경제규모 95조원으로 전국의 6.6%를 차지
- 최근, 지역경제 어려움을 극복할 새로운 모멘텀 및 대응 전략 모색
 - 인접한 도시와의 광역적 연대도시권(네트워크 도시)형성, 시너지 효과 창출 필요
- 3개 시가 맺은 해오름동맹은 강력한 네트워크 도시로서, 지리적으로 연결한 지역이 기존 중심도시-위성도시와 같은 종속적이거나 의존적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 연계와 상호보완성을 기초로 도시권 전체의 발전을 추구하는 광역발전 모델

② 11대 선도과제

- (경제산업분야) 미래형 자동차 산업 육성, 에너지 신산업 기반 조성, 첨단신소재 이니셔티브, 중소기업 혁신역량 축적사업
- (도시인프라분야) 상생발전을 위한 연계도로망 발굴, 동해남부선 폐선 부지 해오름 그린웨이 구축
- (문화관광분야) 해오름테마관광 활성화, 해오름 문화관광융합 혁신 창출, 해오름테마축제 기획 및 개최
- (연구개발과 인재양성 분야) 가속기·계놈 기반 연구개발 활성화

○ (광역거버넌스 분야) 광역거너번스 및 민관협력기구 조직

③ 실행방안

- 중앙정부 부처별 시범사업, 공모사업 파악을 통해 연계 아이디어(사업) 제안
 - ex)국토부의 해안·내륙권 발전거점형 지역계획 수립 시범사업(2017년) : 해오름 거점 지역 선정(6억)
- 각 시 단기 혹은 중장기(중기지방재정계획) 예산 반영
- 새로운 광역 거버넌스 체계 수립 : 협의회 < 재정 권한을 지닌 구속력있는 거버넌스 체계 구축
- 예산 분배 및 중앙정부의 지원 체계 구축 위한 도시권 육성 및 지원 관련 제도(도시권 계정) 마련 촉구



[그림 2-2] 동해남부권 상생발전의 의미

출처: 정현욱(2017).

(2) 대구경북한뿌리상생위원회

① 개요

- 2006년 대구경북경제통합추진위원회 출범으로 본격화 된 대구경북 상생협력은 전국 최초의 자생적 상생협력모델로서 가치를 인정받으며 현안사업을 공동으로 성사시키는 주도적 역할
- 대구경북은 상생협력기반 강화를 위해 2014년 “대구경북 한뿌리 상생협력 추진 조례” 를 개정·공포하고, 이에 근거하여 시·도가 지속적으로 상생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전문가 및 공무원이 참여하는 심의기구인 대구경북한뿌리상생위원회를 발족

② 시사점

- 대구경북한뿌리상생위원회는 조례에 의거한 조직으로 지방자치법 등 법령과는 일부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상생협력의 실질적 구속력이 미흡함
- 또한 대구경북상생협력사업은 대구경북한뿌리상생위원회를 매개체로 양 시·도 실무부서에서 기획·추진함으로써 상생협력기구가 선도적으로 상생협력을 이끌어가기에는 예산규모, 인원 등 자체 행정기반이 취약함

2) 국외사례

(1) 일본 간사이 광역연합(Union of Kansai Governments)²⁾

① 개요

- 일본 지방자치법에 의한 특별지방공공단체로서 일본 최초의 광역연합³⁾
 - 교토부·오사카부(2부), 시가현·효고현·와카야마현·돗토리현·도쿠시마현(5현)은 설립 당시(2010년 12월 발족) 참여했으며 이후 오사카시와 사카이시는 2012년 4월 참가
- 2017년 기준, 인구는 2,195만명으로 전국의 17.3%, 지역총생산은 807,340엔으로 전국의 16% 비중을 차지

② 설립목적

- 중앙집권체제와 도쿄 1극 집중 타파를 통한 분권형 사회 구현
 - 광역과제에 지역이 주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현실적인 구조 형성
- 간사이 전체의 광역행정을 짊어질 책임주체 형성
 - 지진발생에 대비한 광역재해방지체제 정비와 광역구급의료체제 확보
 - 간사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교통·물류기반의 일체적인 운영/관리
- 국가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인수 체제 구축
 - 국가와 지방의 이중행정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의 지방사무 이양을 위한 기반 형성

③ 조직구성

- 광역연합은 의결기관인 광역연합의회와 집행부인 광역연합위원회로 구성

2) 류형철 외(2012). 영남권 경제공동체 실현 기본구상 연구 특별판, 대경CEO Briefing 제 341호(2012.7.23.), 대구경북연구원 참고

3) 광역연합은 일본의 지방자치법에 의한 특별지방공공단체로서 여러 자치단체에 걸친 광역적인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설치되는 행정기구임

- 광역연합의회는 지방자치법에 의한 의결, 선거, 검사, 감사의 청구, 의견서 제출 등 보통 지방공공단체와 동등한 권한을 가짐
- 광역연합위원회의 장은 전체를 대표하는 광역연합장이 되며, 위원회 산하에 세부 위원회가 있고, 실무기구인 광역연합협의회가 부속

④ 사무

- 광역방재, 광역 관광·문화 진흥, 광역산업진흥, 광역의료, 광역환경보전, 자격시험·면허, 광역직원연수 등 7개 분야의 사무를 다루고 있음. 본 고에서는 이 중 광역 산업진흥에 대해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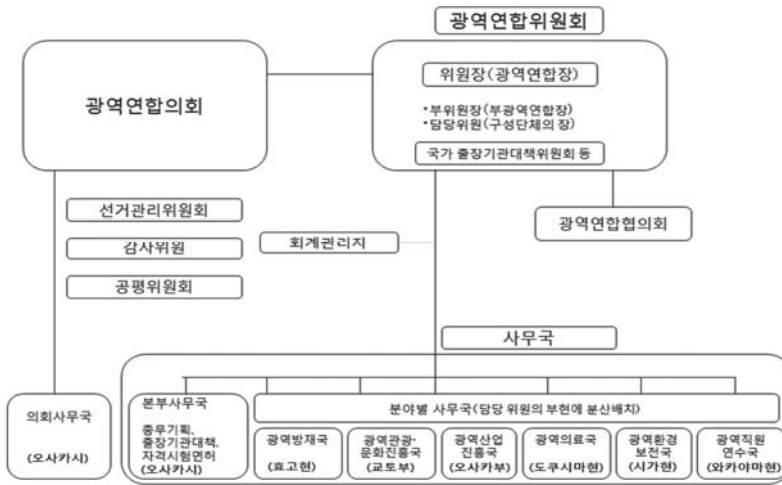
⑤ 광역산업진흥

- 간사이 지역 산업 클러스터는 총 13개이며 대표적인 클러스터로는 한비와호 창조산업, 교토 수퍼 클러스터, 간사이 문화학술 연구도시, 고베 의료산업도시가 있음



[그림 2-3] 간사이 광역연합 현황도

출처: 류형철 외(2012).



[그림 2-4] 간사이 광역연합 조직도

출처: 류형철 외(2012).

[표 2-2] 간사이 지역 산업 클러스터 현황

연번	클러스터 명	범위	참여업체	대학교	연구소
1	나가하마 바이오	시가현	39개	6개	2개
2	시가 의공제휴	시가현	184개	6개	2개
3	환 비와호 창조산업 지구	시가현	53개	2개	2개
4	교토 슈퍼 클러스터	교토 부	42개	10개	6개
5	교토 차세대 에너지 시스템	교토 부	9개	4개	1개
6	교토 생명 혁신	교토 부	426개	15개	15개
7	간사이 문화학술 연구도시	교토, 오사카, 나라	93개	8개	8개
8	북부 오사카 바이오	오사카 부	727개	7개	7개
9	고베 의료산업도시	고베 시	336개	7개	8개
10	하리마 과학공원 도시	효고 현	22개	1개	5개
11	와카야마 현 농산물 건강	와카야마 현	40개	5개	4개
12	돗토리 바이오 전선	돗토리 현	21개	2개	2개
13	도쿠시마 건강행복 혁신	도쿠시마 현	116개	20개	1개

출처: <http://www.kouiki-kansai.jp/contents.php>

○ 간사이 문화학술 연구도시⁴⁾

- 영어로 Keihanna Science City로 알려진 곳으로 교토 부, 오사카 부 및 나라 현 내의 경계 도시인 이코마(生駒), 키즈가와(木津川), 세이카(精華), 시조나와(四條畷), 카타노(交野), 히라카타(枚方), 교다나베(京田辺) 등의 8개 도시로 구성된 학술 도시 연합
- 비전은 문화 및 학술 연구의 진흥, 개방형 혁신 추진, 스마트 라이프를 육성하는 인프라 정비 촉진, 네트워크형 운영체제 구축 등 4가지 임
- 운영 체계는 총회와 간사회가 있으며, 하부조직으로 혁신 추진회의가 있음

○ 고베 의료산업도시⁵⁾

- 1990년대 후반 한신대지진으로 인한 참사로부터 침체된 산업의 부흥과 미래에 다가올 고령화에 대비한 의료복지관련 서비스 질의 상승을 위해 고베시가 간사이 지역의 잠재력을 고려하여 의료산업도시 건립을 구상
- 고베 의료산업도시의 주요기능으로 연구개발, 사업화지원, 인력양성 기능이 선정
- 클러스터의 핵심지식창출기관으로 첨단의료센터, 발생재생과학종합연구센터, 교토대학, 고베대학 등이 있으며, 참여연구기관으로 오사카대학, 국립순환기병센터연구소, 고베시립중앙시민병원 등이 있음
- ‘건강을 즐기는 도시’ 라는 슬로건을 내세워 양질의 의료 제공이라는 일차적 목표와 더불어 단지 조성을 추진

4) <https://www.kri.or.jp/know/>

5) 한국보건산업진흥원(2012). 첨단의료복합단지 발전방향 연구.

(2) 네덜란드 란스타드

① 개요

- 네덜란드 란스타드 지역은 암스테르담, 로테르담, 헤이그, 유트레히트 등 중심도시들과 주변 소도시들이 네트워크형 다핵도시체계를 구축
- 공간적으로 비슷한 규모의 도시들이 상호 적절하게 가까운 50~60km권 내에 4개의 주요 도시들이 다이아몬드형으로 입지해 있으며, 13개의 주변 도시들이 도시회랑을 형성

② 거버넌스

- 란스타드는 델타메트로폴리스협회, 지역의회, 광역행정위원회, 레지오 란스타드(Regio Ranstad) 등 도시간 협력과 상생발전의 활발한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

③ 기능분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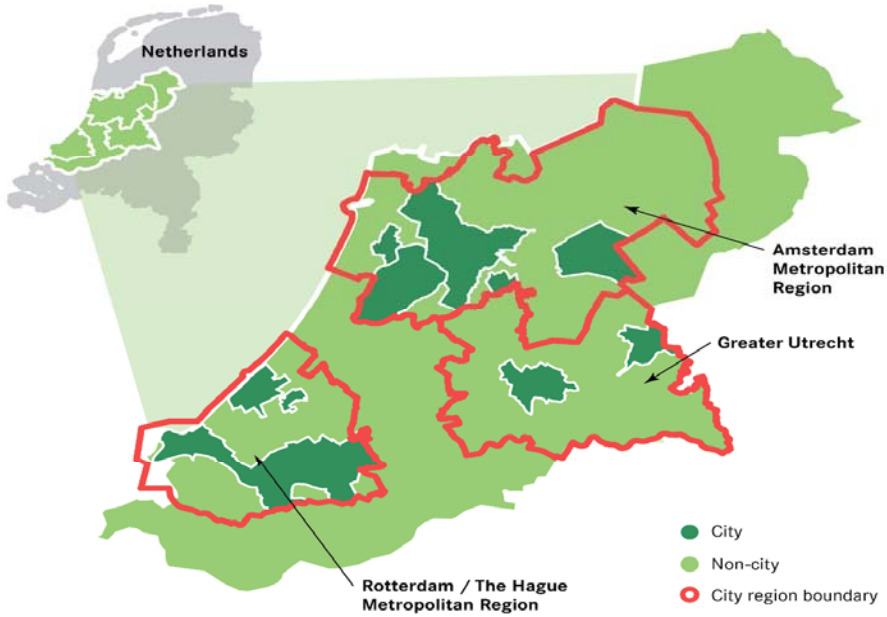
- 이들 도시들은 각각의 도시특성에 기반을 두어 산업과 기능적인 측면에서 전문화되어 있으며, 특화된 도시기능은 도시의 경계를 넘어서 광역 클러스터를 형성
- 4개 중심도시 간 지역적 특성을 토대로 산업과 기능적인 측면에서 특화하여 도시 간 분업과 협력으로 지역경쟁력 제고 및 상생 발전한 모델로 네덜란드 경제의 50% 이상을 차지

[표 2-3] 란스타드 주요 도시의 기능분담

주요도시	인구(2017년)	주요 산업기능 및 자산
로테르담	117만명	항만, 국제무역, 공항, 기업본사, 대학도시
암스테르담	135만명	관광, 무역, 예술, 레저, 은행, 기업본사, 항만
헤이그	105만명	행정 및 정치 중심지, 기업본사, 컨설팅, 관광
유트레히트	34만명	도로 및 철도 허브, 대학도시, 무역, 컨설팅

출처: 권영섭 외(2012).

- 란스타드는 델타메트로폴리스협회, 지역의회, 광역행정위원회, 레지오 란스타드(Regio Ranstad) 등 도시간 협력과 상생발전의 활발한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



[그림 2-5] 최근의 란스타드

출처: <http://www.centreforcities.org/wp-content/uploads/2016/05/Randstad-geographies.png>

3) 시사점

(1)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

- 일본 간사이 광역연합은 약 8년에 걸친 연구과정과 협의 등을 통해 광역연합의 역할과 조직구성 등에 대한 지역 간의 합의를 도출
- 1990년대에 추진했던 오사카만 베이 에어리어 정비계획 등 다수의 지역 간 협력계획을 통해 상당한 경험을 축적해 왔음

(2) 점진적 단계별 접근

- 간사이 광역연합은 개별 부·현이 처해 있는 처지가 다름을 인지하여 점진적 단계별 접근을 시도
 - 참여가 쉬운 지자체를 중심으로 광역연합을 발족함으로써 출범으로 인한 갈등과 혼란을 최소화
 - 관장 사무도 주민들의 실생활과 밀착되고 쉽게 협력할 수 있는 것에서 점차 광역적인 사무로 확장해 나가는 방식을 채택

(3) 명확한 사무분장으로 책임경영 가능

- 간사이 광역연합을 구성하고 있는 각 부·현의 장이 분야별 사무의 책임자가 됨으로써 책임경영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구성
- 간사이 광역연합은 개별 부·현 자체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사무에 집중함으로써 성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 모색
 - 광역적 재해 대응, 닥터헬기 운항, 간사이권 관광루트 개발 등

(4) 상호 협력체계 구축

- 네덜란드 란스타드는 암스테르담, 헤이그, 로테르담, 우트레흐트와 중소 규모의 도시들이 각각 자족적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경제적·공간적으로도 밀접한 관련성을 유지하고 있음

- 13개의 중소도시들이 다핵도시체계를 형성하여 하나의 대도시처럼 기능하면서 규모를 확보하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지역으로 발전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3장

대전·세종 특성분석

1. 일반여건
2. 지역경제
3. 교통 및 유통시설
4. 문화·관광부문
5. 여건종합(SWOT) 분석

3장 대전·세종 특성분석

1. 일반여건

1) 입지여건

- 대전·세종을 중심으로 동쪽으로 청주시·보은군·옥천군, 남쪽으로 논산시·금산시, 서쪽으로 공주시, 계룡시, 그리고 북쪽으로 아산시와 천안시가 위치
- 대전·세종은 한반도 중부권의 거점권역으로 광주, 대구, 부산 등 국내 주요 도시로부터 접근성이 우수하여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영향력 확산에 용이
- 행정구역 면적은 대전 539.3km², 세종 464.9km²으로 대전시 면적 대비 세종시 면적은 86% 정도 수준임

[표3-1] 행정구역 현황

(단위 : km², 개소)

구분	행정구역	읍·면·동		
		읍	면	동
대전	539.3	-	-	79
세종	464.9	1	9	3

출처: 국토해양부(2016). 국토해양통계연보



[그림 3-1] 행정구역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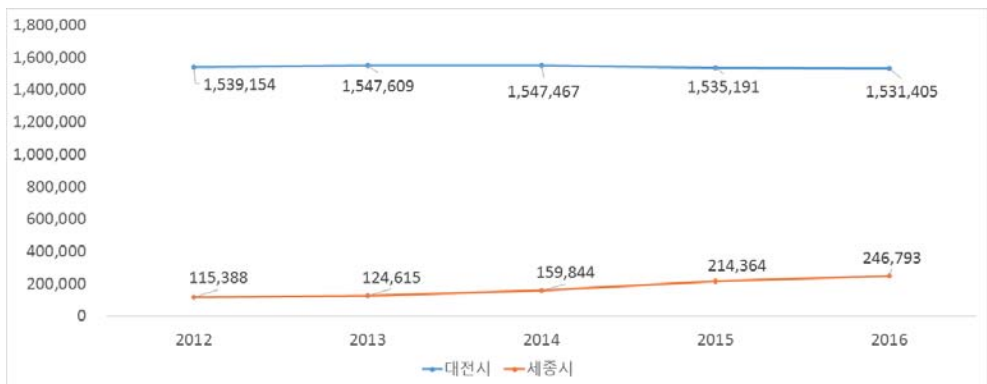
2) 인구추이

- 2016년 기준 대전시 인구는 1,531천명이며 세종시는 246천명임. 2012년 대비 2016년의 경우, 대전시는 -0.5%(-7,749명)로 다소 감소 추세를 보인 반면 세종시는 113.9%(131,405명)으로 큰 폭의 인구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표 3-2] 대전세종 인구 추이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대전시	1,539,154	1,547,609	1,547,467	1,535,191	1,531,405
세종시	115,388	124,615	159,844	214,364	246,793

출처: 대전시·세종시 통계연보(각년도)



[그림 3-2] 대전·세종 인구추이

주: 외국인 인구 포함

출처: 대전시·세종시 통계연보(각년도)

3) 인구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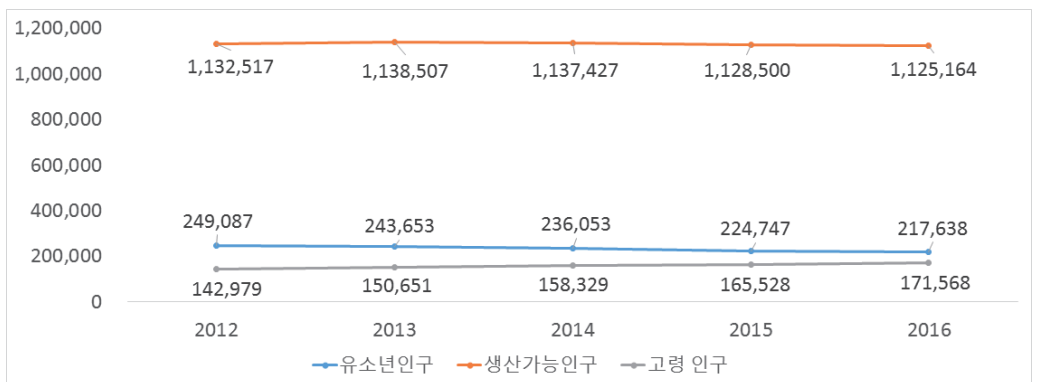
- 대전시 생산가능인구는 2012년 대비 2016년의 경우, -0.6%(7,353명) 감소, 유소년인구는 -12.6%(31,449명) 감소한 반면, 고령인구는 20.0%(28,589명) 증가

- 세종시의 경우, 2012년 대비 2016년의 생산가능인구는 118.7%(91,864명)증가, 유소년인구는 168.0%(31,084명) 증가, 고령인구는 40.6%(6,983명) 증가

[표 3-3] 대전시 및 세종시 인구구조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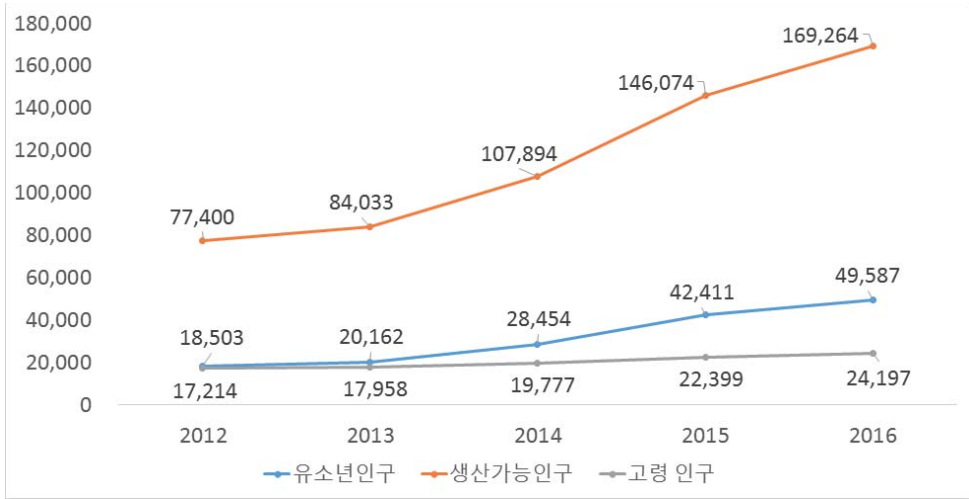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대전시	합계	1,524,583	1,532,811	1,531,809	1,518,775	1,514,370
	유소년인구	249,087	243,653	236,053	224,747	217,638
	생산가능인구	1,132,517	1,138,507	1,137,427	1,128,500	1,125,164
	고령인구	142,979	150,651	158,329	165,528	171,568
세종시	합계	113,117	122,153	156,125	210,884	243,048
	유소년인구	18,503	20,162	28,454	42,411	49,587
	생산가능인구	77,400	84,033	107,894	146,074	169,264
	고령인구	17,214	17,958	19,777	22,399	24,197

출처: 대전시 통계연보(각년도)



[그림 3-3] 대전시 인구구조 추이

주: 외국인 인구 제외, 유소년인구(0~14세), 생산가능인구(15~64세), 고령인구(65세 이상)
출처: 대전시 통계연보(각년도)



[그림 3-4] 세종시 인구구조 추이

주: 외국인 인구 제외, 유효소년인구(0~14세), 생산가능인구(15~64세), 고령인구(65세 이상)
출처: 세종시 통계연보(각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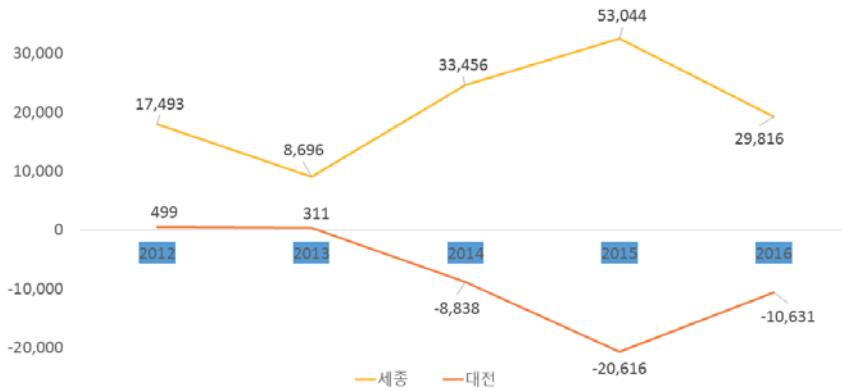
4) 인구가동

○ 2016년 기준 대전시의 순이동은 -10,631명, 세종시는 29,816명임

[표 3-4] 대전·세종 인구가동 추이

지역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대전	총전입	239,635	230,858	239,559	220,774	219,252
	총전출	239,136	230,547	248,397	241,390	229,883
	순이동	499	311	-8,838	-20,616	-10,631
세종	총전입	32,784	23,805	56,526	83,994	65,052
	총전출	15,291	15,109	23,070	30,950	35,236
	순이동	17,493	8,696	33,456	53,044	29,816

출처: 대전·세종 통계연보(각년도)



[그림 3-5] 대전·세종 인구이동 추이

출처: 대전·세종 통계연보(각년도)

2. 지역경제

1) 산업구조

- 2015년 말 기준 대전시의 사업체 수는 111,815개, 종사자수는 586,069명이며, 세종시의 사업체수는 10,480개, 종사자수는 83,764명임

[표 3-5] 대전·세종 사업체 및 종사자수 변화 추이

지역	구분	2012	2013	2014	2015
대전	사업체수	104,609	105,676	109,535	111,815
	종사자수	521,281	536,181	556,297	586,069
세종	사업체수	6,640	7,468	9,124	10,480
	종사자수	46,512	56,867	70,661	83,764

출처: 대전·세종 사업체조사보고서(각년도)

- 대전시는 도매 및 소매업(15.3%)>숙박및음식점업(10.4%)>제조업(10.3%)>교육서비스업(9.5%) 순으로 종사자수 비율이 높음
- 반면에 세종시는 제조업(22.2%)>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19.3%)>교육서비스업(9.2%)>숙박및음식점업(9.0%) 순으로 종사자수 비율이 높음

[표 3-6] 대전·세종 업종별 종사자수 비교

구분	대전		세종	
	종사자수	비율	종사자수	비율
합 계	586,069	100.0%	83,764	100.0%
A.농업, 임업 및 어업	317	0.1%	92	0.1%
B.광업	39	0.0%	135	0.2%
C. 제조업	60,624	10.3%	18,566	22.2%
D.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2,765	0.5%	216	0.3%
E.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1,629	0.3%	348	0.4%
F.건설업	35,937	6.1%	4,579	5.5%
G.도매 및 소매업	89,612	15.3%	6,168	7.4%
H.운수업	30,650	5.2%	2,212	2.6%
I.숙박및음식점업	60,725	10.4%	7,507	9.0%
J.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13,703	2.3%	1,081	1.3%
K.금융 및 보험업	24,357	4.2%	1,163	1.4%
L.부동산업 및 임대업	15,096	2.6%	2,848	3.4%
M.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41,183	7.0%	4,753	5.7%
N.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38,938	6.6%	2,550	3.0%
O.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24,892	4.2%	16,126	19.3%
P.교육 서비스업	55,492	9.5%	7,743	9.2%
Q.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51,413	8.8%	4,143	4.9%
R.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9,547	1.6%	1,161	1.4%
S.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29,150	5.0%	2,373	2.8%

출처: 대전·세종 사업체조사보고서(2015년)

2) 경제활동인구

- 2016년 기준 대전의 경제활동인구는 801천명, 경제활동 참가율은 62.4%이며, 세종시의 경제활동인구는 117천명, 경제활동 참가율은 63.5%임
- 2016년 경제활동 참가율(2012년 대비)에 대한 대전시의 증가율은 2.7%인 비해 세종시의 증가율은 6.5%으로 대전시보다 세종시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2.4배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3-7] 대전·세종 경제활동인구 추이

(단위 : 천명, %)

지역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대전	경제활동인구	753	759	792	805	801
	경제활동 참가율	59.7	59.5	61.4	62.2	62.4
세종	경제활동인구	44.7	59.9	66.6	92.6	117.9
	경제활동 참가율	57.0	59.7	59.9	61.1	63.5

출처: 통계청(KOSIS, 경제활동조사)

3) 산업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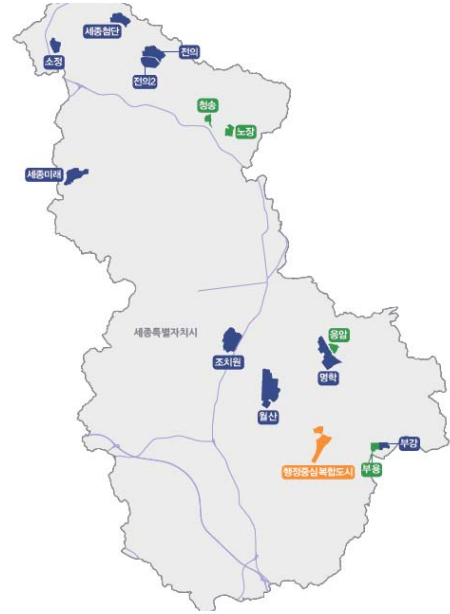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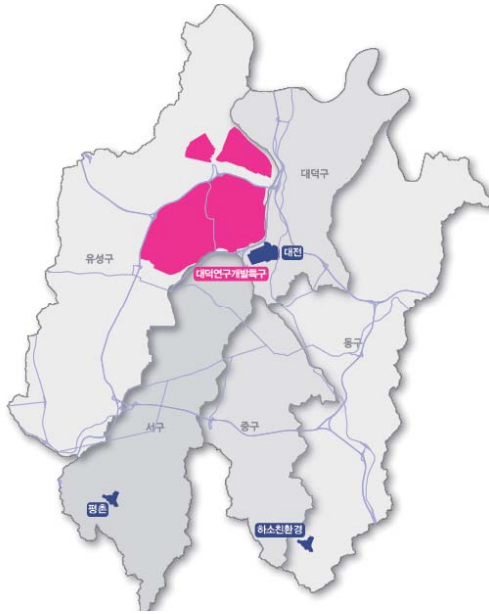
- 대전에는 대덕연구개발특구, 대전제1산업단지, 대전제2산업단지를 비롯하여 7개의 산업단지가 분포
- 세종에는 전의면의 세종첨단(조성중), 행정중심복합단지 4-2단계생활권(조성중) 등 14개의 산업단지 분포
- 2016년 12월말 기준 대전시 산업단지 내 입주업체수는 1,508개, 근로자수는 32,047명, 생산액은 155,341억원, 수출액은 4,025백만달러임
- 2016년 12월말 기준 세종시 산업단지 내 입주업체수는 136개, 근로자수는 10,436명, 생산액은 42,140억원, 수출액은 427백만달러임

[표 3-8] 대전시 및 세종시 산업단지 현황

(단위 : 천㎡)

	유형	시군	단지명	조성상태	지정면적	관리면적
대전	국가	유성구대덕구	대덕연구개발특구	조성중	67,809	67,809
	일반	대덕구	대전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완료	2,369	2,305
	일반	대덕구	대전제1	완료	479	479
	일반	대덕구	대전제2	완료	777	777
	일반	대덕구	대전(주변지역)	완료	1,113	1,049
	일반	서구	평촌	미개발	859	859
	일반	동구	하소친환경	조성중	307	306
세종	일반	연동면	세종미래	조성중	537	537
	일반	소정면	부강(구 부용)	완료	565	148
	일반	전의면	조치원	완료	934	891
	일반	부강면	소정	완료	271	271
	일반	연기면	월산	완료	1,380	1
	일반	전의면	전의	완료	481	481
	일반	연기면	전의2	완료	867	857
	일반	전의면	명학	완료	838	838
	일반	전의면	세종첨단	조성중	643	643
	도시 첨단	금남면	행정중심복합도시 4-2단계생활권	조성중	751	751
	농공	전동면	부용	완료	203	203
	농공	부강면	노장	완료	162	162
	농공	전동면	응암	완료	109	109
	농공	연동면	청송	완료	82	82

출처: 한국산업단지공단, 2017년 2분기 전국산업단지현황통계



[그림 3-6] 대전시 산업단지 현황도 [그림 3-7] 세종시 산업단지 현황도

출처: 한국산업단지공단, 2017년 전국산업단지 현황지도

4) 대학

- 대전 소재 대학의 경우, 중점 육성분야는 195개 분야, 세종 소재 대학은 49개 분야로 파악
- 대학 특성화사업 선정결과, 충남대(8개), 한밭대(3개), 한남대(4개), 목원대(4개), 대전대(2개), 건양대(9개), 우송대(4개), 고려대(2개), 홍익대(1개) 임
- 대학 특성화사업은 바이오, IT 융합, 에너지, 비즈니스, 인문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선정

[표 3-9] 대학별 중점 육성분야 및 특성화 학과 분포

(단위: 개소)

지역	대학명	중점 육성분야	예비 육성분야	특성화 학과
대전	대전과학기술대학교	1	0	1
	우송정보대학	10	11	21
	대전보건대학	22	0	22
	대덕대학	6	0	6
	한국폴리텍Ⅳ대학	0	1	1
	충남대학교	27	0	27
	한밭대학교	16	18	34
	한남대학교	8	0	8
	목원대학교	0	9	9
	배재대학교	5	5	10
	대전대학교	14	0	14
	침례신학대학교	2	0	2
	건양대학교	21	0	21
	우송대학교	40	0	40
	을지대학교	23	0	23
세종	한국영상대학교	16	0	16
	고려대학교	9	0	9
	홍익대학교	24	0	24

출처: 대학알리미

[표 3-10] 대학특성화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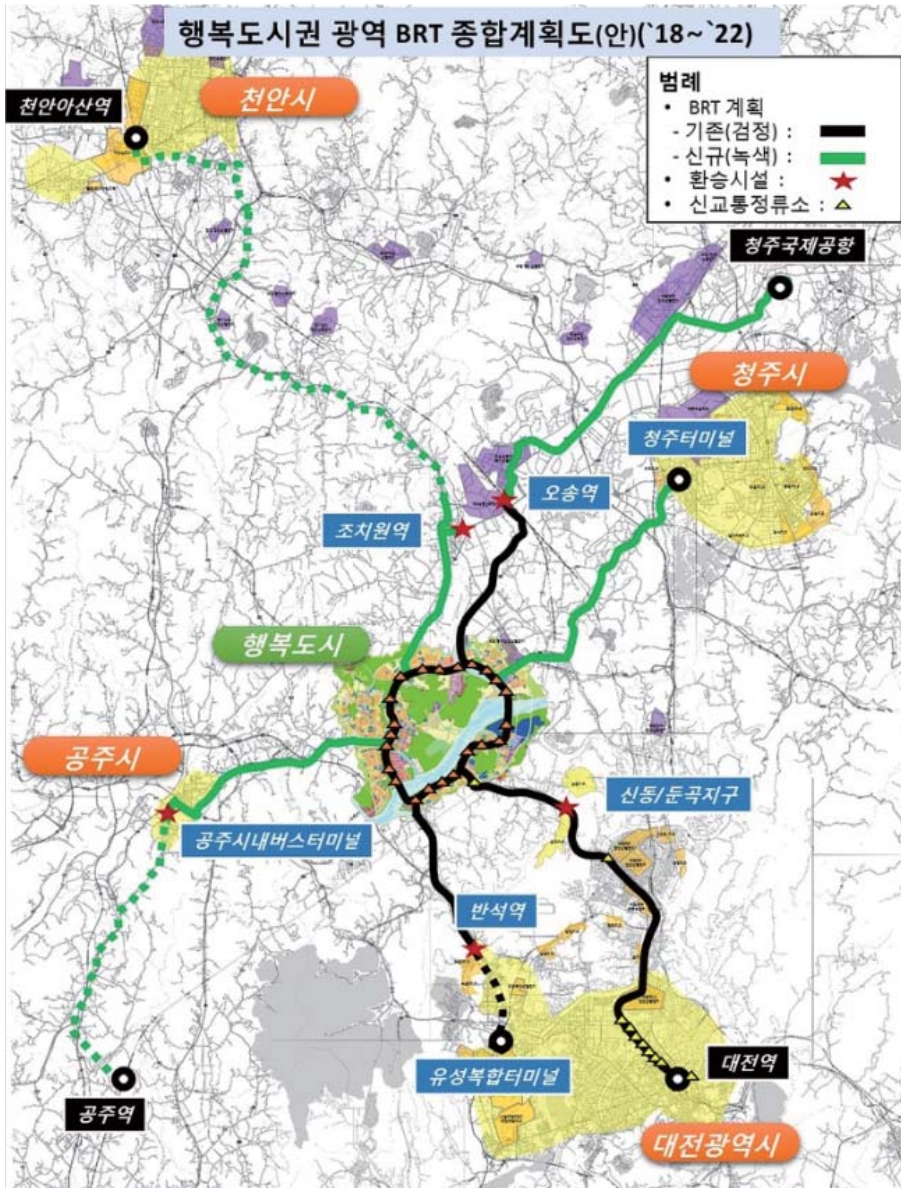
구분	대학명	선정연도	사업단명	소속학과
대전	충남대	2014	지식혁신형 공공인재 양성 사업단	행정학부(행정학과, 자치행정학과), 언론정보학과
		2014	충청권 융합 생명-의약 사업단	메카트로닉스공학과, 수의학과, 생물과학과, 미생물분자생명과학과, 동물자원과학부, 약학과
		2014	국방ICT융합인재양성사업단	컴퓨터공학과, 전자정보통신공학과
		2014	소재·공정 기반 에너지 융복합 창의인재 양성사업단	신소재공학과, 유기재료공학과, 응용화학공학과
		2014	환경친화형 융복합 기계부품 창의 인재 양성 사업단	기계공학부
		2014	글로벌리듬 인문콘텐츠 인력양성사업단	국어국문학과, 철학과, 고고학과, 디자인창의학과
		2014	능력중심사회 구현을 위한 NCS기반 공업기술교원 양성체계 구축 사업단	교육학과, 기술교육과, 건설공학교육과, 기계금속공학교육과, 전기전자통신공학교육과, 화학공학교육과
		2016	지구/우주 국가전략기술 인재양성사업단	지질환경과학과, 천문우주과학과, 해양환경과학과
	한밭대	2014	Design Plus First mover(D+FM)사업단	시각디자인학과, 공업디자인학과
		2014	신산업 창출을 위한 IT 융합 인력 양성 사업단	전기공학과, 전자제어공학과, 컴퓨터공학과, 정보통신공학과
		2016	중국비즈니스 전문인력 양성 사업단	경영회계학과, 중국어과
	한남대	2014	글로벌비즈니스 창의인력 양성사업단	글로벌비즈니스전공, 글로벌IT경영전공
		2014	대덕 밸리 바이오 글로벌(Glocal) Bridge 사업단	생명시스템과학과
		2014	STEM 창조인재 양성 사업단	화학과, 수학과
		2014	글로벌 다문화 지도자 양성 프로그램	기독교학과, 교육학과
	목원대	2014	Neo K-Culture 킬러 콘텐츠 개발인재 양성 사업단	광고홍보인문학과, 중국학과, 역사학과
		2014	ICT기반 유니버설디자인 융합·창의인재양성 사업단	정보통신융합공학부, 산업디자인학과
		2014	미래 생명자원 발굴·활용 전문인력 양성 사업단	미생물나노소재학과, 의생명보건학부, 생의학화장품학부
		2014	통일을 대비한 사회통합형 종교지도자 양성사업	신학과
	대전대	2014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전문인재 양성사업단	행정학과
		2014	국가안전방재 전문인력 양성사업단	군사학과, 경찰학과, 소방방재학과, 건설안전방재공학과
	진양대	2014	STEM교육을 통한 의과학(Biomedical Science) 연구지원인력 양성사업단	임상병리학과, 안경광학과, 작업치료학과, 물리치료학과
		2014	취약계층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통한 협동창업의형 교육·복지 전문인력 양성사업단	사회복지학과, 영유아교육학부 아동보육학과, 특수교육학부 초등특수교육과, 특수교육학부 중등특수교육과, 영유아교육학부 유아교육과
		2014	Mega-FTA를 선도하는 글로벌 제약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단	제약생명공학과
		2014	지역문화, 지역연고산업 기반 문화콘텐츠디자인 창의인재 양성사업단	디지털콘텐츠 디자인학부
		2014	상담과 스포츠 통합 프로그램을 활용한 지역사회 청소년 문제해결 프로젝트 사업단	심리상담치료학과, 재활퍼스널트레이닝학과
		2014	협업형 창의융합인재 브리콜레르(Bricoleur) 양성 프로젝트 사업단	융합IT학부, Global Frontier School, 의약바이오학부, 융합디자인학부
		2014	창조경제의 리더, 차세대 의료공학 전문인력 양성사업단	의공학부, 의료공간디자인학과, 의료IT공학과, 의료신소재학과
2014		STEM교육을 통한 의과학(Biomedical Science) 연구지원인력 양성사업단	임상병리학과, 안경광학과, 작업치료학과, 물리치료학과	
2014		창조경제의 리더, 차세대 의료공학 전문인력 양성사업단	의공학부, 의료공간디자인학과, 의료IT공학과, 의료신소재학과	
우송대		2014	교육·보육 협력모델을 활용한 글로벌 유아교육 전문인력 양성 사업단	유아교육과
	2014	글로벌 핵심역량을 갖춘 이사이전문 경영인력 양성 사업단	솔브릿지경영학부	
	2014	철도클러스터를 연계한 글로벌 철도 전문인력 양성 사업단	철도건설시스템학부, 철도전기시스템학과	
	2016	글로벌 지역전문가 양성 사업단	국제경영학과, 글로벌비즈니스학과	
세종	고려대	2016	문화ICT 융합인재 양성사업단	고고미술사학과
		2016	인공지능 디스플레이반도체 융합디바이스 창의인재양성 사업단	디스플레이반도체물리학과
	홍익대	2014	창의적 커뮤니케이터 육성 사업단	광고홍보학부

출처: 대학알리미

3. 교통 및 유통시설

1) 도로

- 대전·세종은 전국을 연결하는 고속국도, 고속철도 등 고속교통 네트워크와 간선도로망은 비교적 양호하게 구축되어 있으나, 대전·세종 내부간 연결도로망 확장 및 세종을 중심으로 하는 주변 광역 대중교통망 확충이 필요한 상황임
- 이를 고려하여 행복도시권 광역 BRT 개선 종합계획에 따라 행복도시 반경 20km를 20분, 반경 40km를 40분에 연결하는 광역 대중교통망 구축 추진전략을 수립 중
 - 공주, 청주공항, 청주, 조치원 등 4개축의 BRT 노선 신설 필요성 제기
 - 기존 반석역까지 운행되는 BRT를 유성복합터미널까지 연장
- 행복도시권 10대 거점으로 6대 도시거점(조치원, 오송역, 청주터미널, 공주터미널, 반석역, 신동·둔곡지구)과 4대 광역거점(청주공항, 천안아산역, 대전역, 공주역)으로 선정



[그림 3-8] 행복도시권 광역 BRT 종합계획도(안)('18~ '22)

출처: 2017년 제3차 행복도시권 광역교통협의회 회의자료

2) 철도

- 대전~세종 간 공동 생활권 형성을 위해 대전도시철도를 연장해 대전 반석역과 세종 시외·고속버스터미널, 서창역을 잇는 28.5km를 검토 중에 있음
- 대전의 철도 여객 승차인원은 약 115십만명으로 세종 21만명에 비해 5배 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남, 화물의 도착톤수는 대전(1,267천톤)과 세종(1,178천톤)으로 여객의 비해 큰 차이가 없는 것은 행정기관 입지에 따라 화물 물량이 많은 것으로 파악

[표 3-11] 철도수송 현황(2015)

(단위: 명, 톤, 천원)

구분	여객			화물		
	승차인원	강차인원	여객수입	발송톤수	도착톤수	화물수입
대전	11,512,852	11,368,641	147,765,818	182,022	1,267,095	1,163,589
세종	2,171,495	2,191,125	10,506,955	43,726	1,178,395	486,230

출처: 대전·세종 통계연보(2016)

3) 유통시설

- 대전시는 총 92개소, 세종시는 총 7개소의 유통시설을 보유하고 있음. 아직 세종시에는 백화점, 전문점, 쇼핑센터 등 대규모 복합 쇼핑시설이 없으므로 향후 세종시에 백화점 입지하기 전까지는 인근 대전의 백화점을 이용할 것으로 판단됨

[표 3-12] 유통시설 현황(2015)

(단위: 개소)

지역	합계	대형마트 (할인점)	전통시장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상점가	기타 대규모 점포
대전	92	14	29	6	4	2	10	26
세종	7	3	4	-	-	-	-	-

출처: 대전·세종 통계연보(2016)

4. 문화관광부문

1) 문화관광자원

○ 문화재

- 대전 및 세종시 지역은 지정관광지가 전무
- 2016년 기준 대전시의 지정문화재와 등록문화재는 총 210개이며, 세종시는 총 42개 임

[표 3-13] 문화재 현황(2015)

(단위 : 개)

지역	총계	지정문화재													등록문화재
		국가지정문화재							지방지정문화재						
		소계	국보	보물	사적 및 명승	천연 기념물	중요 민속 자료	중요 무형 문화재	소계	유형 문화재	기념물	민속 자료	무형 문화재	문화재 자료	
대전	210	13	-	6	1	1	-	-	122	52	46	3	21	55	20
세종	42	4	-	2	-	1	1	-	25	14	10	-	1	13	-

출처: 대전·세종 통계연보(2016)

○ 축제

- 대전시는 금강로하스축제 등을 포함한 연간 9개의 축제를 개최하고 있으며, 세종시는 세종축제 등 3개의 축제를 연간 개최

[표 3-14] 대전·세종 축제 개최계획(2017)

구분	축제명	개최시기	축제내용
대전	금강로하스축제	4.7~4.9(3일간)	대청호 걷기대회, 수퍼패밀리 키즈플레이존, 반려동물문화제, 대청호 가요제 등
	서구힐링아트페스티벌	4.28~4.30(3일간)	아트트리(예술작품으로 트리를 구성), 예술을 테마로 힐링프로그램 구성, 예술작품 전시판매, 사생대회, 아트마켓, 문화예술공연
	유성온천문화축제	5.12~5.14(3일간)	족욕체험장 및 온천테마탕, 온천을 테마로 한 온천수플레이존, 작정놀이, 불꽃놀이 등
	견우직녀축제	8.26~8.27(2일간)	견우직녀 환타지쇼, 견우직녀 만남프로젝트, 견우와 직녀의 만남을 테마로 한 주제공연, 프로포즈 이벤트, 백년해로상, 타임캡슐 등
	대전국제와인페어	9.1~9.3(3일간)	와인전시 시음전, 와인의 맛과 멋을 테마로 와인과 음악 공연 등
	대전효문화뿌리축제	9~10월(3일간)	문중패레이드, 효세족식, 문중체험관, 효와 뿌리를테마로 한 마당극, 청소년 효골든벨, 효세족식, 효캠프 등
	대전사이언스페스티벌	10.21~10.24(4일간)	정부출연연 체험행사, 미디어아트체험전, 사이언스 매직쇼, 대덕특구 투어, 사이언스 가족캠프등
	계족산맨발축제	5.13~5.14(2일간)	맨발걷기 및 마사야마라톤(맨발달리기), 황토를테마로 한 숲속음악회, 황토테마체험, 맨발도장찍기, 사진전, 문화공연 등
	디쿠페스티벌	8.12~8.13(2일간)	코스튬플레이 경연, 만화 애니메이션을 테마로 한 독립애니메이션 상영, 만화골든벨, 만화산업전 등
세종	세종축제	10.7~10.9(3일간)	세종대왕과 한글을 주제로 한 공연 전시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한글산업전, 연계행사 개최 등
	세종조치원복숭아봄꽃축제	4월중(2일간)	꽃을 테마로 한 사생대회, 공연, 전시, 체험 프로그램 운영, 문화공연 등
	푸드트럭페스티벌	10.7~10.9(3일간)	푸드트럭 존 운영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2017, 2016년 기준 관광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2) 관광기반시설

- 대전시의 여행업은 542개이며 세종시의 여행업은 42개로 파악됨
- 대전시의 관광숙박업은 21개인 반면에 세종시는 전무한 상태임. 향후 세종시 성장에 따른 숙박 수요 발생으로 인하여 관광숙박업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

[표 3-15] 관광기반시설 현황(2015)

(단위 : 개소)

구분	여행업				관광숙박업				
	계	일반	국외	국내	계	가족 호텔업	관광 호텔업	휴양 콘도미업	관광펜션업
대전	542	54	248	240	21	1	20	-	-
세종	42	2	21	19	-	-	-	-	-

출처: 대전·세종 통계연보(2016)

3) 관광객 추이

- 대전시는 2012년 대비 2015년 방문객수가 27% 하락하는 등 매년 감소 추세이나, 세종시는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세종시는 2012년대 대비 2015년 방문객수 비율이 무려 290% 증가하였는데, 이는 초기 세종시 건설로 따른 방문객수가 급격하게 증가한 것으로 보이며 점차 완만한 상승세로 전환할 것으로 판단됨

[표 3-16] 대전·세종 주요 관광지 방문객수 추이

(단위 : 명)

지역	구분	2012	2013	2014	2015
대전	내국인	6,165,127	5,443,750	4,924,784	4,796,024
	외국인	425,338	1,650	12,181	4,680
	계	6,590,465	5,445,400	4,936,965	4,800,704
세종	내국인	149,667	535,270	546,621	581,808
	외국인	104	4,990	5,427	3,658
	계	149,771	540,260	552,048	585,466

주: 주요 관광지(유료관광지)만을 대상으로 방문객수를 중복 집계

출처: 대전·세종 통계연보(2016)

5. 여건종합(SWOT)분석

1) 강점요인

- ① 국가중추기능(세종특별자치시)과 과학기술(첨단 R&D분야 기반시설과 인적자원)의 전국적 영향력과 지배력 보유
 - 국가중추관리의 중심 : 중앙행정기관 16개 기관(9부, 2처, 2청, 1실, 2위원회)이전
 - 국가 지식경제와 기술혁신의 중심 : 세계적인 R&D 인프라를 바탕으로 창업보육 및 사업화를 위한 최적의 산업클러스터 구축여건 우수
 - R&D분야 우수한 인적자원 보유 : 혁신창출의 근원, 미래형 융합과학 연구 가능
 - ② 동북아 및 국토의 교통·교류 중심지 역할과 지역 간 상생발전의 잠재력 보유
 - 유통·물류중심으로써 최적의 입지요건을 갖추고 있으며 광역교통의 허브로서 고속철도 및, 고속도로의 분기점이기도 하며 동북아 물류의 배후로써 내륙 종합유통산업의 허브로 성장할 가능성이 충분
 - ③ 백제/기호유교 문화권의 중심지
 -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문화예술, 종교, 학문, 역사 등 다양한 분야의 문화자원을 보유한 권역이 공존 : 백제·기호유교 문화권
- 주변의 주요 관광지과 문화시설들과 연계하여 관광시설기반의 정비 및 확충이 용이

2) 약점요인

- ① 중부권 핵심 도시권역의 발달 미흡과 낮은 GRDP, 인구증가 정체현상(대전)등

- 핵심지역의 성장이 국가성장을 선도하는 스페illo버(spill-over)나 거대 경제집적지 육성을 통한 지역 간 발전의 시너지 창출에는 어려움이 많음
- 인구증가율의 둔화, 고령사회 도래, 국내투자 및 생산기반 위축 등의 대내적 여건을 고려했을 때, 대외적인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도시권역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편임
- ② R&D와 상업화 연계를 위한 산업지원 인프라 부족
- 대전의 R&D, 세종의 중추 행정기능 등의 기능적 분업은 예상되나 이를 상호 연계·발전시켜 사업화 및 상업화에 따른 지원시설 등이 부족한 편임
- 세계적 앵커산업의 부재로 규모의 경제 및 시장지배력 확대에 애로
- ③ 대전·세종간 지역발전 격차 상존
- 대전·세종간 경제적 격차로 상호 연계·융합 및 시너지 도모 한계 : 두 지역간 경제력 격차를 극복해야 하며 농어촌지역의 자립적 발전기반이 취약

3) 기획요인

- ① 국가중추행정기관의 이전과 다양한 고급인력의 유입
- 중앙행정기관 16개 기관(9부, 2처, 2청, 1실, 2위원회) 및 16개 국책연구기관(국토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등)의 이전 완료
- 연구직, 교육직, 정부 행정직 등 전문화된 지식과 정보를 갖춘 고급인력들은 대전·세종권의 경제·사회활동을 고도화시키고 전문화시킴으로써 특화된 권역을 형성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임
- ② 국토균형발전 실현의 기회
- 기존 경부축 중심의 국토공간 불균형구조에 대한 문제점 인식으로 인하여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첨단의료복합단지 등 국가의 핵심사업들이 추진 중

- 국가의 광대역 연결부에 중부권이 위치함으로 주변과의 연계발전에 유리한 환경
- ③ 첨단산업벨트 등의 초광역차원 사업추진의 잠재적 여건 풍부
- 대전시와 세종시를 비롯한 충남, 충북 등이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IT 산업의 세계적 확산 기회
- 대덕, 세종, 오송·오창으로 이어지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구축하게 될 경우 미래 국가성장 동력원의 역할이 가능
- ④ 광역교통망 확충 (도로, 고속도로, 철도 등)
- 호남고속철도, 동서고속도로 건설 등

4) 위협요인

- ① 지역 간 경제력격차의 심화와 고급인력의 정착(정주)기반 미약
- 지역 간 경제력 격차가 심화되고 있으며 농어촌지역의 자립적 발전기반이 취약함 : 기 발달되어 있는 충청 북부권 및 경부축의 산업 및 정주체계를 내륙으로 파급시킬 수 있는 지역개발 정책이 필요하여 고급인력의 확보를 위한 정주기반 및 도시기반시설 확대가 필요
- ② 중심도시와 세종시로의 생활형 역류현상으로 주변 중소도시의 공동화 우려
- 쾌적한 녹색환경 및 어메니티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세종시 인접 도시들(대전, 청주, 공주 등)의 생활형 역도시화 현상이 우려
- ③ 세종시 이전효과가 악화될 우려
- 수도권과 가깝고, 광역교통이 편리하여 세종시 주요 이전기관들의 종사자들은 수도권 수준의 생활환경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정착하지 않을 우려가 있어 오히려 이전효과가 악화

④ 수도권 규제완화로 제조업기반 약화

- 수도권 규제 완화는 수도권 공장입지에 대한 규제 완화, 조세 및 부담금 완화, 환경규제 완화 등을 포함하고 있어 기업투자의 수도권 집중, 인구유출, 중부권의 경쟁력 상실 등 우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의 중심지로서의 입지적 우월성 • 국가중추관리기능 집적으로 글로벌 혁신환경 조성 • 첨단 R&D 기반 및 고급인력 유입으로 국제비즈니스 기능 강화 • 동북아 및 국토의 교통·교류의 중심지 • 수려하고 풍부한 역사문화공간과 관광자원 보유 • 백제/기호유교 문화권의 중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종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등 대규모 국책사업과의 산업·교육 연계가능 • 국제과학벨트 및 중앙행정기관 이전과 과학자 및 고급인력 유입 • 첨단산업벨트 연계성 강화로 생산기반 잠재력 증대 • 국가광역교통망 확충과 지역간 연계성 양호 • 광역교통망과 연계 역사·관광·문화의 접근성 제고
<p>Strength(강점)</p>	<p>Opportunity(기회)</p>
<p>Weakness(약점)</p>	<p>Threat(위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부권 핵심도시권역 발달 미약 • 고차서비스산업 기반취약 등 중심도시 글로벌 경쟁력 미약 • 수도권에 비해 낮은 기술인력 • 대전·세종 내 지역발전 격차 상존 • 관광자원 발굴 및 연계개발 미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심도시와 인근도시 간 서비스 수준 격차로 행.재정손실 발생 • 고급인력의 정착(정주)기반 미약 • 중심도시와 세종시 집중으로 중소도시의 공동화/난개발 우려 • 각종 개발에 따른 지가상승 • 수도권 규제완화로 제조업기반 약화

[그림 3-9] 대전·세종 상생협력을 위한 SWOT 분석결과

4장

대전·세종 상생발전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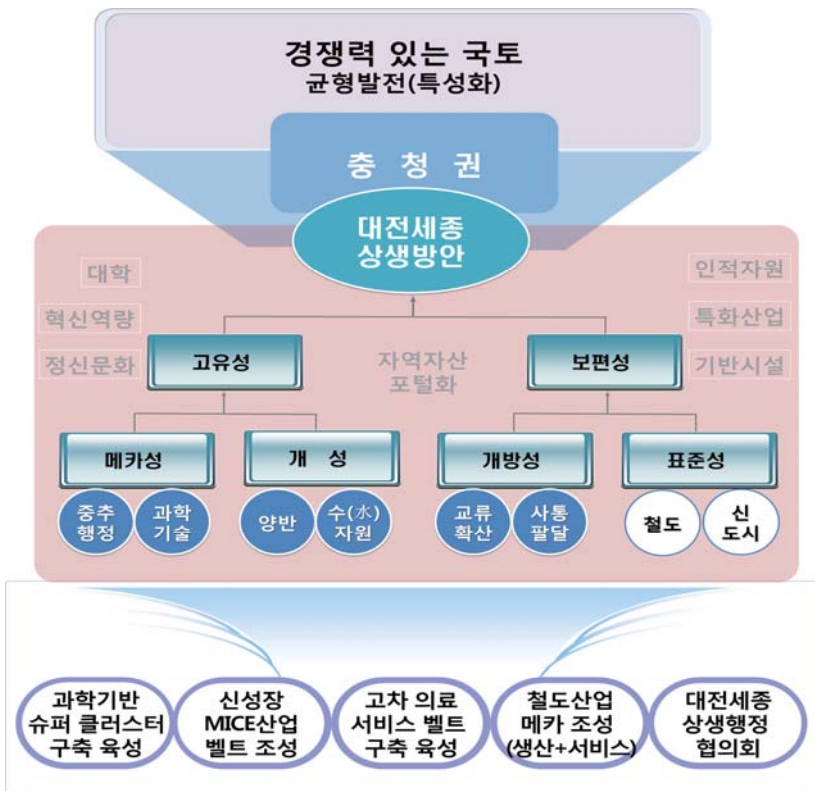
1. 기본방향
2. 상생 발전구상

4장 대전·세종 상생발전 방향

1. 기본방향

1) 상생발전 기본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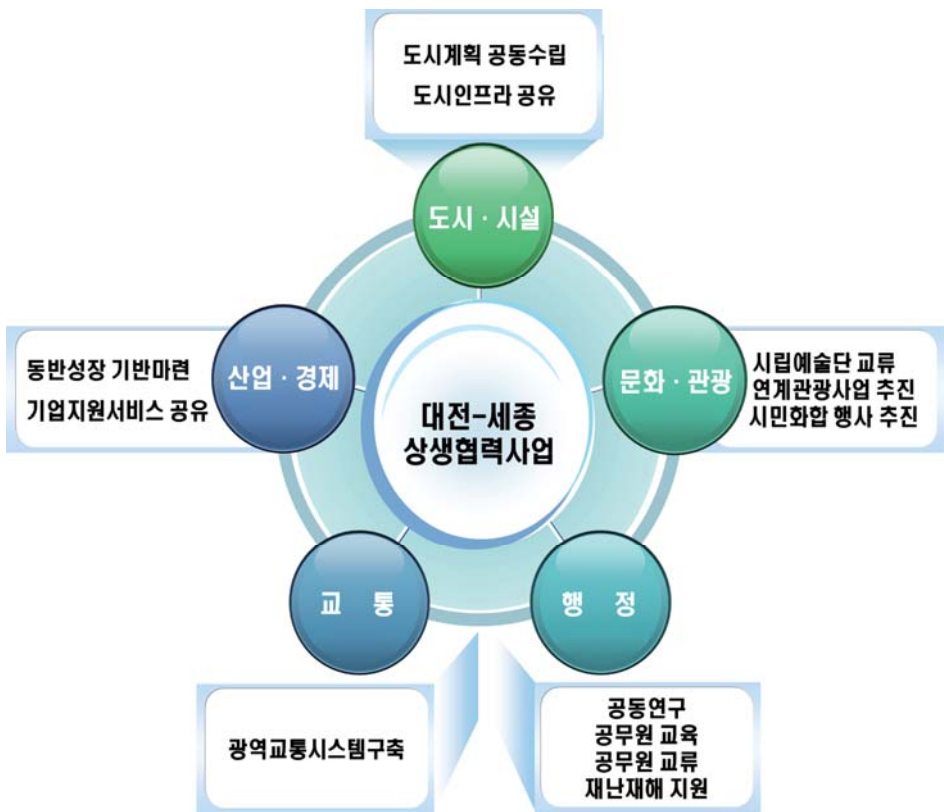
- 다양한 대전·세종의 지역자산을 기반으로 한 대전·세종 상생발전 기본구조는 ①과학기반 슈퍼 클러스터 구축 육성, ②신성장 MICE산업 벨트 조성, ③고차 의료 서비스 벨트 구축 육성, ④철도산업 메카조성, ⑤대전세종상생행정협의회 운영 등임([그림 4-1] 참조)



[그림 4-1] 대전·세종 상생발전 구상 기본구조

2) 상생발전 주요과제 : 5개 분야 12대 과제

- 도시·시설분야(2) : 도시계획 공동수립, 도시인프라 공유
- 산업·경제분야(2) : 동반성장 기반마련, 기업지원서비스 공유
- 교통분야(1) : 광역교통시스템 구축
- 문화·관광분야(3) : 시립예술단 교류, 연계관광사업 추진, 시민화합 행사 추진
- 행정분야(4) : 공동연구, 공무원 교육, 공무원 교류, 재난재해 지원



[그림 4-2] 대전·세종 상생협력사업

2. 상생발전 발전구상

1) 과학기반 슈퍼 클러스터 구축 육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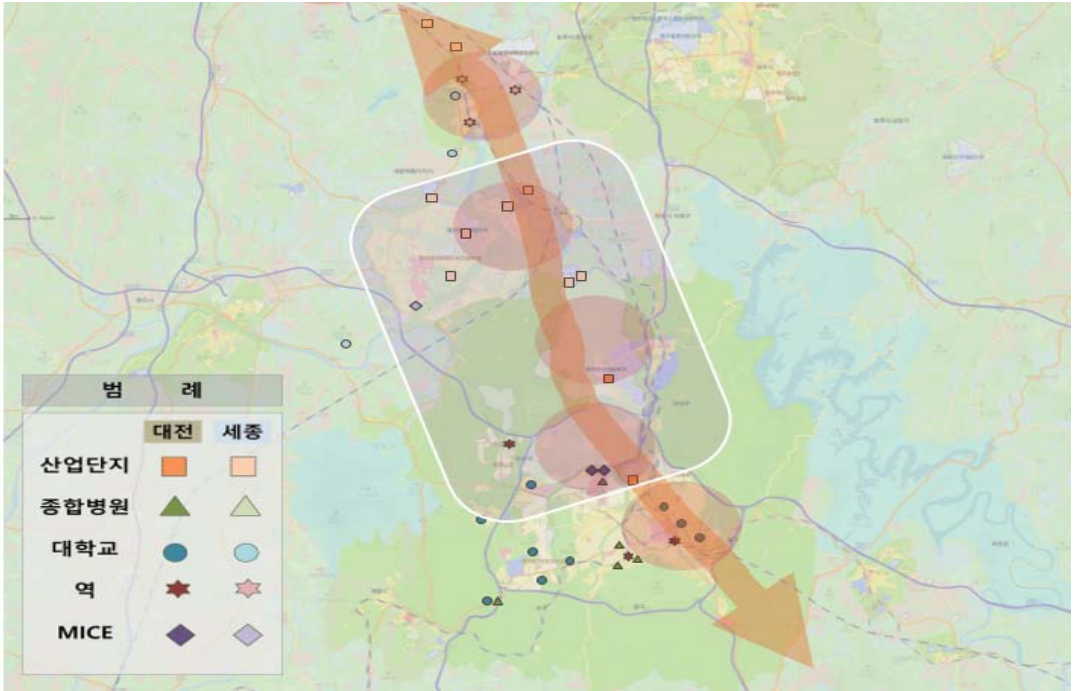
(1) 배경

- 대전·세종에는 대덕연구개발구,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과학 연구관련 행정기관 등 주요 국가연구개발 시설과 인력이 집중되어 있음. 따라서 여기에서 생산되는 지식의 특성을 반영하여 기초, 원천 연구성과의 사업화 모델을 구축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보유
- 대덕연구개발특구는 지난 40여 년간 축적된 기술과 인력 기반을 갖추고 있으며 74개의 연구기관 집적, 산·학·연이 공간적으로 밀집되어 있어서 R&D인적네트워크 활성화가 가능하며 세계과학도시연합(WTA)를 설립한 과학연구기술도시로서 정부공인 벤처기업들이 집적되어 있음
 - 주요 기관으로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등이 있음
 - KAIST를 비롯한 대전에 소재하고 있는 13개 대학교, 6개 전문대학은 정보통신, 바이오, 신소재, 메카트로닉스 등 첨단산업 관련 학과를 갖추어 연구 역량이 풍부
- 세계적 수준의 과학 기반 혁신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기초연구에 집중하는 과학벨트 거점지구와 기초연구 성과를 사업화하고 이를 확산시키기 위한 기능지구를 연계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조성 중에 있음
 - 과학벨트 거점지구인 대전(신동·중이온 가속기 구축, 둔곡·산업용지와 상업·주거·지원시설, 도룡 기초과학연구원 건립)이 기초연구 성과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는 핵심을 맡게 됨
 - 세종을 중심으로 천안, 청주로 구성된 과학벨트 기능지구는 거점지구에서 나온 연구 성과를 연계·확산시키는 역할을 수행

- 대덕연구단지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성과물들은 대표적인 과학기반산업(science-based industry)으로 과학기반산업은 기업 내·외부가 R&D가 산업 내 기술혁신원천에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산업으로 물리학, 화학, 생리학 등 기초과학 연구가 중요함
- Pavitt은 대표적인 과학기반산업으로 전자산업, 정밀화학산업, 바이오산업 등을 거론하였으며, 기초연구 결과가 주로 제품혁신 위주의 성과로 표출됨을 주장하였음(황혜란, 2016)

(2) 기본방향

- 대전 카이스트 등 대학-대덕연구단지-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주변 첨단산업-국가행정서비스를 연계하는 IoT산업생태계 구축 및 미래산업 테스트베드 거점화를 수행할 수 있는 과학기반 슈퍼 클러스터 구축 육성
 - 사이언스 파크(기업, 연구기관), 열린캠퍼스(대학), 캠퍼스타운(상업·업무시설)을 융복합적으로 조성
-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하는 융복합 산업생태계 조성 및 국제화 정주 기반 육성 ⇒ 행정구역을 초월한 슈퍼 클러스터 구축
- 기초연구-응용연구-제품개발-상품화·사업화를 융복합적으로 연계하여 대전·세종을 제4차 산업혁명의 전진기지로 육성
- 사이언스 파크(기업, 연구기관), 열린캠퍼스(대학)간 R&D지원. 세계적 수준의 슈퍼컴퓨터와 첨단과학기술연구망을 연동한 국제공동협업연구 지원
-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기초연 & 대덕특구·지역거점 연구기관 간 공동 R&D지원, 기초연구자 R&D지원 기금 설치로 과학발전에 기여할 우수한 성과를 낸 과학자 등 지원, 연구성과의 사업화와 연구의 지속성 유지를 위한 기금, 펀드조성, 과학기술인력 양성 및 안정적인 기초연구를 위한 환경조성
- 또한, 청년연구자 노벨프론티어(기획연구) 연구지원, 과학-응용기술 Society 사업, 과학기술 인력 양성 사업, 장비공동이용 시스템 구축



[그림 4-3] 과학기반 슈퍼 클러스터 구축

2) 신성장 MICE산업벨트 조성

(1) 배경

- 대전·세종은 대전컨벤션센터(DCC), KOTRA대전무역전시관(KOTREX), 정부세종컨벤션센터(SCC) 등 우수한 전시컨벤션센터가 입지

[표 4-1] 국내 전시컨벤션센터 현황(2015년)

구 분 (개관년도)	위치	전시시설		회의시설		총 규모(m ²)
		전시 홀수	규모(m ²)	회의 장수	규모(m ²)	
aT Center(2002년)	서울	2	7,422	9	1,610	9,032
BEXCO(2001년)	부산	5	46,380	51	8,723	55,103
CECO(2005년)	창원	2	7,827	12	2,784	10,611
COEX(1998년)	서울	4	36,007	54	11,568	47,575
DCC(2008년)	대전	4	2,520	26	4,862	7,382
KOTREX(1995년)	대전	1	4,200	-	-	
EXCO(2011년)	대구	5	22,159	15	5,134	27,293
GSCO(2014년)	군산	1	3,697	13	2,512	6,209
GUMICO(2010년)	구미	2	3,402	7	953	4,355
HICO(2014년)	경주	2	2,273	17	5,137	7,410
ICC JEJU(2003년)	제주	3	2,395	28	7,929	10,324
KDJ Center(2005년)	광주	4	12,027	29	4,111	16,138
KINTEX(2005년)	일산	10	108,566	36	13,303	121,869
SETEC(1999년)	서울	3	7,948	4	816	8,764
Songdo ConvensiA(2008년)	인천	2	8,416	23	2,154	10,570
SCC(2014년)	세종	4	2,487	4	1,116	3,603

출처: 한국전시산업진흥회(<http://www.akei.or.kr>) 참조

- 대덕연구개발특구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정부세종청사 이전 등 늘어나는 전시수요에 대처할 대규모 전시공간 확충이 절실한 실정
- 이를 위해 현 대전무역전시관 부지에 지상 2층, 지하 2층 규모로 연면적 4만970m²의 전시시설을 짓는 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 사업이 2021년에 완성되면 대전컨벤션센터, 정부세종컨벤션센터와 연계해 중부권 최대 MICE(회의·관광·컨벤션·전시) 인프라를 보유하게 됨

- 대전·세종의 MICE 인프라를 바탕으로 MICE 행사의 유치 및 개최를 통하여 해당 분야의 다양한 네트워크 형성, 교류 및 협력을 유도하고 이를 통한 조직 및 기업, 관련 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개최 도시의 발전에 주요한 역할 수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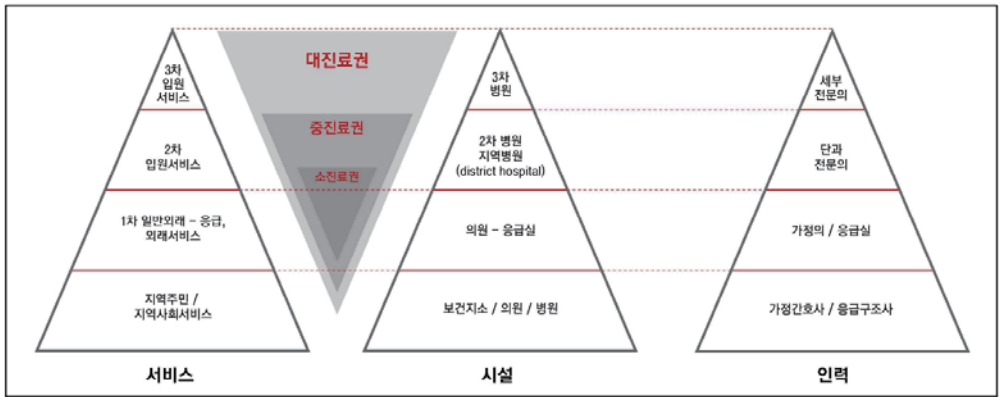
(2) 기본방향

- 대전·세종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세종시 입주 등 ‘과학’, ‘비즈니스’, ‘국가중추 기능’ 등과 관련하여 다양한 국제회의 및 전시 등을 바탕으로 한 MICE산업 발전이 기대됨
- MICE산업은 단순히 국제회의, 전시회, 인센티브만을 개최하는 것이 아니라, 전시회와 국제 컨퍼런스는 혼합된 형태로 개최되고 있으며, 전시회, 컨벤션, 인센티브, 관광 등 엔터테인먼트 등이 상호 복합적인 기능을 추구하며 개최되고 있음
- MICE산업은 관광과 비즈니스가 융합(Convergence)된 고부가가치 신성장동력산업으로 비즈니스, 숙박, 쇼핑, 엔터테인먼트 등 관련시설 복합화를 통해 MICE 유치확대, 참가자 지출 증가 등 경쟁력 강화 필요
- 대전·세종의 경우, 대전컨벤션센터(DCC)와 KOTRA대전무역전시관, 정부세종컨벤션센터 등 우수한 MICE산업시설 있으므로 주변의 문화·관광자원 연계한 신성장 MICE산업 벨트를 조성
- 신성장동력산업인 MICE산업 육성을 통한 서비스산업 고도화와 MICE 산업벨트는 대전·세종의 글로벌화에 기여하게 될 것임

3) 고차 의료서비스 벨트 구축 육성

(1) 배경

- 한국보건산업진흥원(2011)에서는 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단계를 지역 사회 → 기본보건의료(1차의료) → 첫번째 의뢰수준(2차의료) → 두번째 의뢰수준(3차의료) → 세번째 의뢰수준(국가중앙병원)으로 구분



[그림 4-4] 의료권 설정기준

출처: 정경석 외(2016), 「대전의료원 설립 기본구상 및 타당성 분석」, 대전발전연구원

- 대전·세종권은 교통의 발달로 동일 생활권으로 의료 서비스의 범위는 하나의 대진료권(의료권)으로 구분할 수 있음
 - 대전의 대표적인 병원으로 충남대학교병원, 대전선병원, 대전성모병원, 을지대학교병원 건양대학교병원, 대전한국병원, 유성선병원, 대전병원, 대전보훈병원 등이 있음
 - 세종은 세종충남대병원(2019년 개원 예정), 단국대학교병원 등이 있음
- 이외에 대전·세종은 대전의료원, 국립 어린이재활병원, 중부권 원자력의학원 설립 등 고차원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기존 종합병원 및 대전 의료원(유치 노력 중)이 대덕 특구에서 개발한 첨단 의료기기 상용화를 위한 테스트 베드 역할과 스마트 병원 시스템 도입 등이 필요

- 세종의 주력사업은 2015~2017년까지는 ‘바이오 소재’와 ‘자동차부품’이었으나, 2018년부터는 ‘정밀의료’와 ‘첨단 수송기기 및 부품’으로 바뀔 예정으로 향후 의료 중심의 산업이 활발할 것으로 예상됨

[표 4-2] 지역주력산업(2015~2017년)

구분	2015~2017년		
	바이오 의약 식품부티	기계소재/전기전자/화학/세라믹	정보통신 서비스
대전	메디 바이오	로봇 자동화 금속가공	지식재산 서비스 무선통신 융합
세종	바이오 소재	자동차 부품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표 4-3] 지역주력산업(2018년~)

구분	2018년~		
	바이오 의약 식품부티	기계소재/전기전자/화학/세라믹	정보통신 서비스
대전	바이오 기능성 소재	로봇 지능화	무선통신 융합
세종	정밀의료	첨단수송 기기부품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2) 기본방향

- 대전·세종권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세종시 등 국가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국책사업을 연계할 수 있는 고차 의료서비스 벨트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서는 신규개발보다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와 첨단의료복합단지과 연계하여 고차 의료서비스 벨트를 전략으로 육성하여, 기초과학, 응용과학이 공존하는 신약개발과 치료, 첨단 의료장비 개발 및 사업화가 이루어지는 미래형 메디컬 융·복합도시를 조성함으로써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음
- 고차 의료서비스 벨트 내 글로벌 차원의 의약업체와 의료기관, 교육 및 연구기관을 유치하여 새로운 방식의 차세대 성장동력 거점으로 대전·세종권은 물론 국가 차원의 글로벌화를 선도할 수 있을 것임

4) 철도산업 메카 조성(생산+서비스)

(1) 배경

- 대전은 지리적으로 국토의 중심에 위치하고 우리나라 2대 간선인 경부선과 호남선이 대전에서 분기하기 때문에 '철도교통도시' 또는 '근대도시'라 일컬음
- 대전은 2009년 입주한 한국철도산업의 본산인 한국철도공사와 한국철도시설공단 본사가 위치한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철도산업의 메카임
 - 철도산업과 기술력을 기반으로 국제적인 철도관련 비즈니스들이 대전역 철도기관청사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음
- 대전역은 우리나라 전역을 철도생활권으로 묶어 온 국민이 이용하기가 편리하고, 세종시와 대전역을 잇는 간선급행버스(BRT) 터미널의 시발점으로 광역교통망과 연결이 용이한 지역임
 - 철도 운영 면에서도 고속철도역이 정차하고 1일 5만 여명이 대전역을 이용하고 있어 우리나라 4대 역 중의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 대전은 광역교통의 거점기능으로서 KTX 역 기능 강화를 위한 KTX역 주변의 효율적 활용이 요구됨
- 또한 대전역 일대에는 1920년에서 1930년대에 지어진 40여 동의 소재동 철도관사촌과 1950년대 철도보급창고가 원형을 유지한 채 잘 보존되어 있음
 - 이러한 근대문화유산들은 국내에서 가장 큰 규모로 잘 보존된 것들이며, 우리나라 주거문화 발전에도 큰 영향을 미쳤음
 - 대전시는 철도보급창고와 철도관사촌의 복원 및 활용사업, 고 김재현 기관사 동상건립과 철도공원화사업, 중앙로 인근에 산재한 근대 건축물들과 연계하는 사업들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음
 - 역세권 개발계획을 조정하여 관사촌의 일부를 공원 내에 편입시키는 등 보존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들도 취하고 있음

- 대전도시철도를 대전 반석역에서 세종시 조치원읍 서창역까지 연장해 수도권 전철과 연결하는 대전도시철도 연장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
- 세종지역을 남북으로 관통하는 도시철도망은 세종시의 행정수도 기능 수행과 대중교통 중심의 광역교통망 구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회 기반시설임



[그림 4-5] 행복도시권 광역철도 설치 계획(안)

- 국가교통기간망축과 KTX 운영에 따른 국토의 시공간 단축은 대전세종도시권을 전국 1일 생활권 시대로 변화시키고 있음

(2) 기본 방향

- 대전은 국토 중앙에 위치한 철도중심도시로서, 미래의 철도산업을 선도할 한국철도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갖고 있음
 - 대전은 철도로부터 태동한 도시이자, 대한민국 철도산업의 중심지, 철도와 함께 성장하며 풍부한 문화유산 및 콘텐츠 보유, 많은 유동인구와 연간 200만명 이상의 관람객 유치 가능한 우수한 접근성을 갖고 있음
- 이를 위해 대전시의 전략사업으로 대전역 명품역사 개발, 미래 철도 박물관 건립, 복합환승센터 개발, 대전역세권재정비촉진사업 등 추진
- 코레일,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 한국기계연구원, 우송대 등 철도 관련 대학, 소재동 철도관사촌 등 근대 철도문화유산 등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를 기능적으로 연계
- 세종시는 철도정책 및 사업의 개발 추진하는 국토교통부가 입지하고 있으므로 행정의 중심 역할 수행
- (국가적) 수도권과 영남권, 호남권 등 전국을 이어주는 복합환승 HUB 및 중부권의 新성장거점 역할로 국토균형발전 기여
- (광역적) 복합환승센터와 대전역세권 재정비촉진사업과 연계하여 비즈니스 및 물류의 허브로서 충청권광역경제권 형성의 기폭제 역할
- (도시적) 고밀도 입체개발 추진으로 교통기능과 도시기능이 통합된 공간으로 원도심 도심기능 회복 및 도시재생 기여
- 이는 대전·세종 중심도시와 인근지역간의 미약한 연계성을 극복하는 기반이 될 것이며, 또한 낙후지역 철도건설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을 촉진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됨



[그림 4-6] 철도산업(문화)메카 조성 개념도

5) 대전세종상생행정협의회

(1) 배경

- 대전·세종은 과학과 행정을 특화시켜 시너지 효과를 낸다면 제2수도로 도약·발전해 서울에 버금가는 거대 도시로 변모할 가능성이 있음
- 이미 대전시와 세종시는 16개 세부협력사업을 추진했고 이 중 12개 사업을 완료하였음
 - 대전시가 세종시의 2단계 수돗물을 공급하고 대전역에서 세종시까지 운행하는 BRT 노선도 개통
 - 두 도시의 상생 발전을 위한 정책을 발굴·연구하는 싱크탱크 조직인 대전세종연구원도 출범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와 연계된 산업단지 조성 과 대전도시철도 1호선의 세종 연결 등을 대표적인 향후 신규 과제로 추진하고 있음
- 단기적으로는 경계 행정 내에서 발생하는 인구 유출 등 '세종시 블랙홀 현상'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공동 생활권인 두 도시는 상호 협력을 통한 상생발전이 더 큰 명제라는 인식이 저변에 깔려 있음

(2) 전략

-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대전세종 협력사업 보다 한 단계 진전된 대전세종상생행정협의회를 조직할 필요성 제기
- 충청권 행정협의회 규약을 참고하여 대전세종상생행정협의회를 출범하며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상생협력과제(사업)의 효과적인 발굴·추진을 위하여 「대전세종상생협력 기획단」을 설치
 - 기획단은 대전시 또는 세종시의 소속 TF팀으로 설치하고, 대전시와 세종시에서 파견 등 인사발령을 받은 공무원과 대전세종연구원으로 구성

[표 4-4] 대전·세종 상생협력사업(5개 분야 12개 과제)

분야	과제	세부사업
산업·경제	동반성장 기반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접지역 상생산업단지 공동조성 · 국내외 투자 및 기업 공동유치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연계협력
	기업지원서비스 공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테크노파크, 경제통상진흥원 등 기업지원기관 공동 활용 · 국내외 마케팅 공동 추진 · 국가공모사업 공동 참여
교통	광역교통시스템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RT 노선 확대 운영 ※ 당초 계획되었던 대전~세종 BRT노선은 오송까지 확대하며, 그에 따른 운영주체와 운영방식 등은 별도 협의한다. · 무료환승 등 광역환승체계구축 · BIS(버스정보시스템) 공동 운영
도시시설	도시계획 공동수립	· 광역도시계획 공동 수립
	도시인프라 공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단계 상수도 공급 · 평생교육시설(시민대학, 도서관 등) 공동 활용
문화·관광	시립예술단 교류	· 시립예술단 교류·초청 음악회 개최
	연계관광사업 추진	· 관광마케팅 공동 추진
	시민화합 행사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체육교류, 상생축제, 농특산물 직거래 등 · 국내외 행사 공동 개최
행정	공동 연구	· 연구원 통합 설치 운영 등 공동 연구 활성화
	공무원 교육	· 대전인재개발원 활용 세종시 공무원 교육
	공무원 교류	· 공무원 동호회 친선대회 및 상호 인사교류(파견) 실시
	재난재해 지원	· 상호 재난재해 긴급 지원체제 구축

출처: 내부자료

(예시) 충청권 행정협의회 규약

- **(목적)** 지방자치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권 광역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함으로써 권역 안의 균형있는 발전과 광역행정의 효율적인 사무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충청권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를 설치·운영
- **(구성)** 협의회는 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충청북도와 충청남도로 구성
-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결정
 1. 도시계획의 수립 및 변경시행
 2.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주택단지 및 공업단지 등의 조성
 4. 환경오염 방지시설 운영 및 감시에 관한 사항
 5. 시·도간 연결버스 노선의 신설·변경·폐지 등 교통망에 관한 사항
 6. 도로의 신설 및 개수·보수 등에 관한 사항

(예시) 충청권 상생협력 기획단 운영 규정

- **(목적)** 이 규정은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의거 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충청북도·충청남도 등 충청권 4개 시도(이하 “참여 시·도”)로 구성된 「충청권행정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충청권 상생협력과제(사업)의 효과적인 발굴·추진을 위하여 「충청권 상생협력 기획단(이하 “기획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구성)**
 - ① 기획단은 운영 시·도의 소속 TF팀으로 설치하고, 참여 시·도에서 파견 등 인사발령을 받은 공무원과 연구원으로 구성
 - ② 단장은 1명으로 하고, 운영 시·도 소속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하며, 직원은 운영 시·도를 제외한 참여 시·도에서 파견된 6급 공무원으로 함
 - ③ 연구원은 참여 시·도 발전연구원장의 지정(추천)을 받은 자 또는 참여 시·도에서 통보 받은 자로 하고, 근무형태는 비상주로 함
- **(기능)** 기획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함
 1. 충청권 상생협력 비전·전략 및 각종 계획·정책 수립
 2. 충청권 공동협력사업(아젠다) 발굴 및 추진상황 관리
 3. 충청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동 대응방안
 4. 충청권 행정협의회 회의개최 및 규약 제(개)정 사항
 5. 기획단 회계 및 보안업무, 기록물 및 물품관리
 6. 기획단 예산편성 등 시도 자원확보 및 집행관리
 7. 연구원의 정책과제 수행 등 관리
 8. 그 밖의 기획단 운영 등에 관한 사항
- **(조사·연구의 의뢰 및 지원연구기관의 지정)**
 - ① 기획단은 과제 발굴 및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음
 - ② 기획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1항의 기관 등 연구활동을 수행하는 기관을 지원연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음

5장

결론 및 정책건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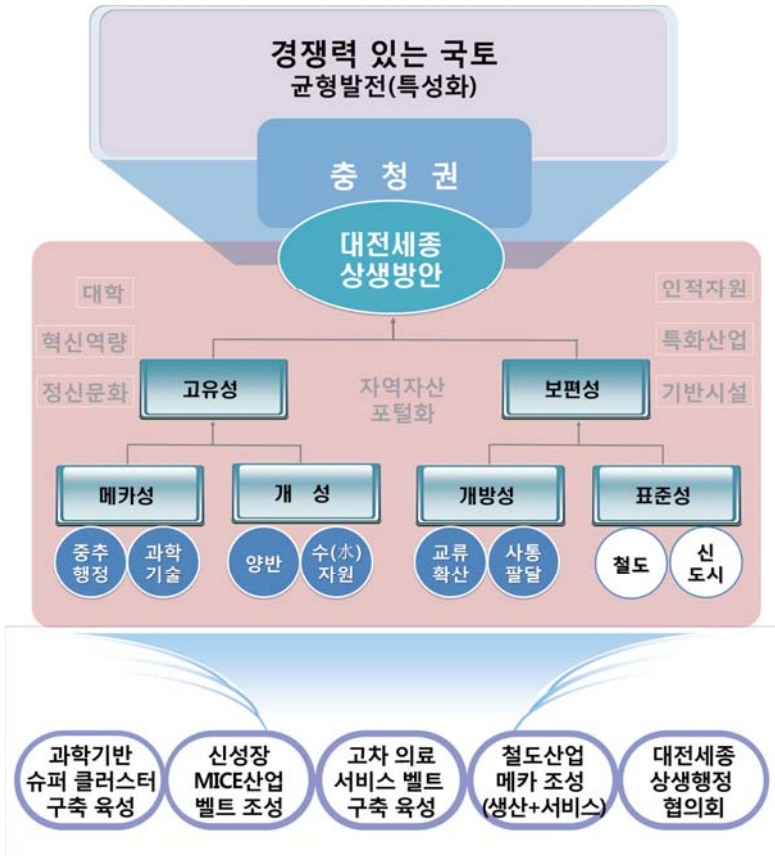
1. 결 론
2. 정책건의

5장 결론

1. 결론

□ 기본방향

- 대전·세종 상생발전 기본구조는 ①과학기반 슈퍼 클러스터 구축 육성, ②신성장 MICE산업 벨트 조성, ③고차 의료 서비스 벨트 구축 육성, ④철도산업 메카조성, ⑤대전세종상생행정협의회 운영 등임



□ 과학기반 슈퍼 클러스터 구축 육성

- 대전·세종에는 대덕연구개발구,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과학 연구관련 행정기관 등 주요 국가연구개발 시설과 인력이 집중되어 있음. 따라서 여기에서 생산되는 지식의 특성을 반영하여 기초, 원천 연구성과의 사업화 모델을 구축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보유
- 대전 카이스트 등 대학-대덕연구단지-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주변 첨단산업-국가행정서비스를 연계하는 IoT산업생태계 구축 및 미래산업 테스트베드 거점화를 수행할 수 있는 과학기반 슈퍼 클러스터 구축 육성

□ 신성장 MICE산업벨트 조성

- 대전·세종의 경우, 대전컨벤션센터(DCC)와 KOTRA대전무역전시관, 정부세종컨벤션센터, 국제전시컨벤션센터(예정) 등 우수한 MICE산업시설 있으므로 주변의 문화·관광자원 연계한 신성장 MICE산업 벨트 조성
- 신성장동력산업인 MICE산업 육성을 통한 서비스산업 고도화와 MICE산업벨트는 대전·세종의 글로벌화에 기여하게 될 것임

□ 고차 의료서비스 벨트 구축 육성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와 첨단의료복합단지와 연계하여 고차 의료서비스 벨트를 전략으로 육성하여, 기초과학, 응용과학이 공존하는 신약개발과 치료, 첨단 의료장비 개발 및 사업화가 이루어지는 미래형 메디컬 융·복합도시를 조성함으로써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음
- 고차 의료서비스 벨트 내 글로벌 차원의 의약업체와 의료기관, 교육 및 연구기관을 유치하여 새로운 방식의 차세대 성장동력 거점으로 대전·세종권은 물론 국가 차원의 글로벌화를 선도할 수 있을 것임

□ 철도산업 메카 조성(생산+서비스)

- 대전은 대한민국 철도산업의 중심지, 철도와 함께 성장하며 풍부한

문화유산 및 콘텐츠 보유, 많은 유동인구와 연간 200만명 이상의 관광객 유치 가능한 우수한 접근성을 갖고 있음

- 세종시는 철도정책 및 사업의 개발 추진하는 국토교통부가 입지하고 있으므로 행정의 중심 역할 수행하고 있으므로 대전세종을 철도산업(문화)메카로 조성하고자 함

□ 대전세종상생행정협의회

-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대전세종 협력사업 보다 한 단계 진전된 대전세종상생행정협의회를 조직할 필요성 제기
- 충청권 행정협의회 규약을 참고하여 대전세종상생행정협의회를 출범하며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상생협력과제(사업)의 효과적인 발굴·추진을 위하여 「대전세종상생협력 기획단」을 설치

2. 정책건의

- 대전세종지역은 국토균형 발전 차원에서 중심 허브 내지 충청권 공동발전의 연계확산 역할이 가능한 이점을 지니고 있는 지역임
- 대전세종지역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국가 중추행정과 과학기술 중추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발전 잠재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아젠더 및 핵심프로젝트가 미약한 실정임
- 따라서 대전세종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상생발전계획을 수립하여, 대전세종 상생 아젠더 및 핵심프로젝트 발굴·추진할 필요가 있음
- 이는 대전세종의 상생발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정책적, 계획적 기반으로 작용될 수 있을 것임

참고문헌

- 권영섭 외(2012), <미래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다핵도시체계 확립과 육성방안>, 국토연구원.
- 권용석 외(2015), <대구경북 상생협력 활성화를 위한 기초연구>, 대구경북연구원.
- 김동주 외(2010), <글로벌 도시권 육성방안 연구(Ⅰ)>, 국토연구원.
- 김동주 외(2011), <글로벌 도시권 육성방안 연구(Ⅱ)>, 국토연구원.
- 김병태(2016), “해오름동맹, 포항-경주-울산이몽쳤다!”, <대경 CEO BRIEFING> 제447호, 대구경북연구원.
- 대전·세종 통계연보(각년도).
- 대전·세종 사업체조사보고서(각년도).
- 대전광역시, <내부자료>.
- 대학알리미
- 류형철 외(2012), “영남권 경제공동체 실현 기본구상 연구 특별판”, <대경 CEO Briefing 제341호>, 대구경북연구원.
- 손정렬(2011), “새로운 도시성장 모형으로서의 네트워크 도시 : 형성과정, 공간구조, 관리 및 성장전망에 대한 연구동향”, <대한지리학회지> 제46권 제2호.
- 정경석 외(2016), 「대전의료원 설립 기본구상 및 타당성 분석」, 대전발전연구원
- 정현욱(2017), “대도시권 협력사례-동해남부권『해오름동맹』”, <수도권 미래발전포럼> 1차 회의자료.
- 한국보건산업진흥원(2012), <첨단의료복합단지 발전방향 연구>.
- 한국산업단지공단, <2017년 2분기 전국산업단지현황통계>.
- 한국전시산업진흥회(<http://www.akei.or.kr>)
- 한표환·김선기·김필두(2002), <자치단체간 협력사업 활성화 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황혜란(2016), <대전의 글로벌 수준 과학도시 도약을 위한 정책방향과 과제>, 대전발전연구원.
- Capellom, R.(2000). The City Network Paradigm: Measuring Urban Network Externalities, *Urban Studies*, vol.37. no.11. pp.1925-1945.
- Champion, A, G.(2001). A Changing Demographic Regime and Evolving Poly centric Urban Regions: Consequences for the Size, Composition and

Distribution of City Populations, *Urban Studies*, vol.38. no.4. pp.657-677.

Batten D.F.(1995). Network cities : creative urban agglomerations for the 21st century, *Urban Studies*, vol.32. no.2. pp.313-327.

Jeroren van Schaik(2005). Integrating the Social and Spatial Aspects of the Urban System Comparing the Models of Heeling, Dupuy, Castells and Lefebvre, *Shifting sense : Looking back to the future in spatial plannig*, pp.251-263.